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보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겨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종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3월 7일 (토) 제 152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보수 성향일수록 신앙, 자녀양육 중시하고 근면

퓨포럼, '일관되게 보수적' 미국인 대상 5가지 설문 조사결과 발표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의 정치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나간다.

지난 1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전통주의자'로 불리는 70세 이상에서 48%, '베이비붐세대'로 분류된 51-59세에서 44%였다. 반면에 젊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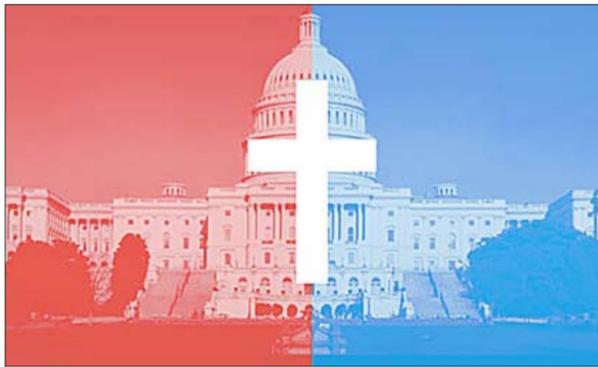
대일수록 '자유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가지는 특성을 무엇일까?

퓨포럼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실들에 대해 설문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5 facts about consistent conservatives).

차기 대권 경선을 위한 공화당 예비 경선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번 주를 계기로 시작된다. 바로 미국 전역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모이는 연례 컨퍼런스(The annual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가 열렸기 때문이다.

흔히 연례 시삽으로 불리는 2015년 '보수파 정치행동 컨퍼런스'가 워싱턴DC에서 지난 28일 열려 3월 1일 끝마쳤는데, 공화당 예비 경선 주자들 중 캔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R. Paul) 후보가 비공식 예비 투표에서 25.7%라는 압도적인



조사결과 미국의 보수성향의 사람들일수록 신앙이 깊고 근면하며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율 높고 시골/소도시 거주하며 팩스뉴스 신뢰 9% 불과하나 11월 선거에 78% 참여, 의석수 좌지우지

지지를 받았다.

연례 시삽에 참가하는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범위들(consistently conservative or liberal, mostly conservative or liberal, and mixed) 중 "일관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국 인구에서 9%를 차지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에 기우는 사람들이 20% 그리

고 "거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33% 안에 포함돼 있다.

1. 일관되게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그 어떤 그룹보다도 정치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

일단 일관되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과 정치 활동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 보수적인 사람 중 1/2는 지난 2년간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 수치를 따져 보면 28% 정도의 인구 구성비를 갖는다.

따라서 선거가 아닌 정치 활동 행위 즉 정치 헌금(26%), 유세 행사장 참가(24%) 그리고 지지 후보 유세 캠페인 자원봉사자(28%)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 일관되게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3면으로 계속)

미국 신학교에 빨간 불...외부 재정지원 감소

크리스천센추리, 학생들 학비에 의존...

예비 목회자들 학비 빚 문제 소개

지난 10년 동안 신학교 등록을 저조가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목회를 위한 과정인 M.Div 과정에 등록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인이나 남미 이민자들, 소수계 이민 커뮤니티와 교회의 성장으로 히스패닉 목회자 후보생들의 등록은 해마다 50%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등록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M. Div 과정보다 상위 과정인 신학 석, 박사 과정(S.T.D., Ph.D., Th.D.)은 그나마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신학교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M.Div. 과정의 감소로 인한 재정난

을 피해갈 수 없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신학교들이 재정난에 허덕거리고 M.Div. 등록에 의존하는 주원인은 바로 지난 2006년에 최고치를 보인 교회들의 보조가 24%나 감소됐고, 2008년 이후로 개인들의 보조나 후원금이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센추리는 갈수록 재정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미 신학교의 현 주소와 자구책을 보도한다(Paying for seminary: M.Div.'s in debt).

신학교에 대한 교회나 개인들의 후원이나 보조금 감소에 따라 학교 운영이 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학비에만 의존하게 되는 기현상을 만들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신학교들은 재정적 압박을 덜기 위해 등록을 신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과반수 이상인 86% 정도인 등록금이나 학비 그리고 각종 비용들에 좌지우지되게 됐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27%, 고등교육 지수가 38% 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신학교 재정 상태가 얼마나 비참 상황인지를 가리키는 위험 지수다.

아직까지 신학교 학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전문 학위과정에 비하면 낮지만, 신학생들 역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상황이라는 부채를 안고 가는 악순환을 이어간다.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겠다는 거룩한 소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 "이중적 소득 구조"에 빠지는 목회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반신학교육연구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신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추적해봤다. M.Div. 3년 과정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4만달러였고, 12%의 신학생들은 6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금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지난 10년 동안 대출 금액을 하향시켰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해서 보통 1만3천 달러 정도를 1991-2001년에 대출을 받았고, 2011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반절 정도인 7천 달러 정도의 대출을 64% 정도의 신학생들이 받았다.

융자를 받은 신학생들 중에서 독신인 학생들이 결혼한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돈을 빌리게 된다. 그 이유는 결혼한 학생은 배우자를 통해 2차적인 소득이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학생일 경우,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기에 융자금이 많았다. 주로 여성들이 싱글이었기에 많았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신학생들이 백인들에 비해 많았다.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나이든 싱글 흑인 여성들로, 이 중 어떤 학생들은 학자금 상황이라는 부담을 이기지 못해, 교회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아픔도 있었다.

신학교들은 따라서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학생들이 내는 학비 의존도가 상향됨에 따라, 만만치 않은 상당한 금액을 빚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목회자 초년생들은 신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을 요긴하게 활용을 못하게 되는 현 상황에서 신학교들은 원래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정신건강에 '긍정적 뉴스' 절실하다!



3면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면 설교 부담 해결!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16면

"결혼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경제적으로 더 중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5년 6월 이전엔 졸업 예정인 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5년 5월 11일(월)~13일(수) 뉴욕장소, 5월 15(금)~18(월) 브라질장소
- 2) 고시 장소: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고시부서기에 문의바람)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창세기 6:1-4
(2) 신약 주해 - 사도행전 9:10-19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인장에서 교단적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4) 설교 원고 - 이사야 40:26-31
①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필기고사 당일엔 본인이 선택한 논문을 중심으로 설교원고사를 지름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5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5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인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9회 총회기간(5월 19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교시생은 고시부서기(김영기목사)에게 시험기간(11일-13일 2015년뉴욕장소, 15-18일 2015년브라질장소) 중사용할속속을예약할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Rev. Young Kee Kim) / Email: youngkey48@gmail.com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443)520-5242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718)309-3376, kilhee2003@yahoo.com
- 2)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3) 고시부 회계: 허윤준목사(718)637-1470, jameshr63@hotmail.com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



시론

문화와 소통하라(2)



최정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행위는 날로 무자비하고 폭력적임은 물론 반문화적임을 보여주는 영상이 26일 잇따라 공개돼 세계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영상 속 인물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대원들로서 그들이 점령한 이라크 북부 모술 지방의 고대 유적지들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모습이다. 약 5분 길이의 이 영상에는 IS대원 남성 2-5명이 박물관으로 추정되는 건물 안에 전시된 대형 조각상들을 망치로 쳐부수거나 전기 드릴로 파헤치는 장면도 있다. 이들이 훼손한 유물은 기원전 9세기 앗시리아 시대의 조각에서부터 오스만제국시대 발명품들, 이라크에서 최초의 인쇄소에서 찍어낸 시리아어 서적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모술의 한 도서관에 소장된 희귀 서적과 고문서 8,000여 점을 소각했고 박물관 유적뿐만 아니라 무술 중부에 위치한 쿠드르 사원도 폭발시켰다. 이라크 내 IS대원들이 점령한 곳에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발흥한 수메르 문명, 이후의 바벨론 문명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문화유적이 무려 1,80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한 IS 대원은 "무슬림들이여, 내 뒤에 있는 유물들은 신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해왔던 고대 사람들의 흔적이다"라며 "예언자 무하마드는 과거 그의 거룩한 손으로 이러한 우상숭배물을 제거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하마드가 이러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인류문명의 흔적과 발자취인 문화유산들을 파괴하는 일은 인류문화와 역사 자체를 말살하는 자학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문화유산은 인류문명의 존재론적 발자취이기에 이를 파괴하는 것은 문화적 자살행위와 다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문명의 발전에 근거하여 점진적 계시의 형태로 언약을 발전시켜왔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인류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몰이해이며 오히려 문화를 관통하는 점진적 소통의 원리가 구속사의 본질임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증거된다. 그러므로 교차 문화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소통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복음 커뮤니케이션의 결렬현상이 일어남을 알게 된다. 나아가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으면 복음적 접촉점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성육신처럼, 복음 소통을 위해 자신이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고, 로마인이 되지 않았던가(고전9:19-23 참고)

인간의 어떤 행동(behavior)은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표적 행동에는 '무엇이 좋은가? 혹은 최선인가'라는 가치들(values)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 속에는 '무엇이 참된 것인가?'라는 신념(belief)이 자리잡고 있고, 그러한 신념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실재인가?'라는 세계관(the view of world)이 자리잡고 있다. 교차 문화적 유산들을 잘 연구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집단의 세계관에 따른 실제적인 가치와 신념체계 등이 직조된 면직물처럼 융합해 짜여져 있음을 이해하며,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복음 소통의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익한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몇 년 전 중국 북경 시내에 자리한 천단(天壇)이란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천단은 명나라 영락제(永樂帝) 재위 18년인 1420년에 정원을 둘러싼 담과 함께 '하늘의 신계 제사를 드리는 단'(天壇)이란 이름으로 지어졌다. 그곳에는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 있었으며, 짐승들을 잡아 태우는 번제단이 있었고, 제사의 마지막은 포도주를 부어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였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중동에서 극동으로 오랜 세월 흘러들어가면서 중국의 역사 전통에 희미한 그림자처럼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인류문명은 기독교적 유산들이 알알이 보석처럼 밝혀 있기에 복음 소통의 중요한 요소들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며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신건강에 '긍정적 뉴스' 절실하다!

허핑턴포스트, 부정적 뉴스가 미치는 정신적 충격 연구결과 보도

TV를 켜든 인터넷을 열든 트위터를 보든, 세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새로운 재난(때로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재난)이 우리를 또 강타한다. 24시간 계속되는 뉴스 덕분에 충격, 비행기 추락, IS 참수형, 다양한 범죄, 전쟁, 또 인권 침해 사례가 끊임 없이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다. 그런데 이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뉴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 세상은 지금 당장 무너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뉴스는 폭력적이고 침울하며 우리의 감정을 최대로 자극한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What Constant Exposure To Negative News Is Doing To Our Mental Health).

것은 물론 그런 사건을 목격하는 것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 포함됐다)을 보면 위의 내용이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통계 편람에는 위협적인 행위를 직접 목격한다는 전제가 담겨있다고 데이비 박사는 지적했다.

물론 우울증이나, 불안, 혹은 PTSD 성향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던 사람이 부정적 뉴스에 노출된다고 무조건 그런 증세를 겪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더 비관적으로 변하거나 세상이 귀찮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다간 이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까지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연구가 명백하게 말하는 것은 폭력과 파괴에 매일 노출되는 우리에게 긍정적 뉴스가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슬레이트(Slate)

정치학자 사나 가다리언은 지난 10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테러는 본질적으로 극적이며 위협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독자 수가 줄고 있는 치열한 미디어 환경에선 기자들이 자극적인 영상과 이야기를 선호하게 된다"고 가다리언은 말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정적 경향이 이유일 수 있다. 즉, 위협이나 공포에 더 흥미를 느끼는 우리의 본능 말이다.



폭력적 영상 자주 접하는 언론인일수록 PTSD증상 높아 긍정적 저널리즘, 웰빙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까지 유도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계속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뉴스에 노출된다면 단순한 비판이나 반감을 넘어 장기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미디어 폭력 전문가인 영국 심리학자 그레이엄 데이비드는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심리 현상이 폭력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생기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는 허핑턴포스트에 "부정적 뉴스는 사람의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통과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담긴 내용일수록 말이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부정적 뉴스는 개인적인 우려로도 이어지는데, 그런 뉴스를 본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더 위협하거나 더 심각하게 느낀다. 그런 걱정이 한 번 시작되면 보통 때보다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더 난해하고 조절 불가능한 것처럼 여길 가능성이 커진다."

데이비드 박사에 의하면 부정적 뉴스가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냐에 따라 개인의 환경은 물론, 세상과의 소통 방법에도 영향을 행사한다. 즉, 뉴스가 불안감과 슬픔을 자극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더 예민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

확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상황조차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신경학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부정적 이미지를 볼 때 폭력을 묘사하는 이미지나 영상이 진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가 내면화되면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이 가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데이비드 박사는 "이런 이미지는 전체적인 기분을 더 부정적으로 변하게 한다. 더 슬프고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변하면서 우리 주변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가 표출된다(위협적인 상황이나 공포 요소를 감지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 기분에 악순환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데이비드 박사는 말한다.

트라우마가 묘사된 미디어 이미지만 보고도 PTSD를 겪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200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9.11 사건을 TV로 본 것만으로도 미래의 테러를 걱정하는 PTSD 증세가 나타났다. 증세의 강도는 그런 뉴스에 노출 정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미리 걸음되지 않은 잔인

한 이미지를 많이 접하는 언론인 들일수록 정신적 피해가 높다고 한다. 폭력적인 영상을 자주 접하는 언론인일수록 PTSD 증상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일을 회피하거나 전체적인 불안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증세가 나타났으며, 음주량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심해졌으며 신체화장애도 겪었다.

연구팀은 잔인한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사람들이 화면에 묘사되는 고통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둔감하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새로 포함된 PTSD 진단 기준(본인이 직접 치명적인 사건을 겪는

에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와 국제학 교수인 앤드루 맥이 게재한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은 뉴스 일면에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큰 문제없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전체 폭력 사례는 역사에 비해 줄었으며 수백 수천만 인류의 삶의 질은 향상됐다. 언론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Positive News" 사이트의 설립자인 손 대간 우드는 최근 TED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더 긍정적인 저널리즘은 우리의 웰빙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참여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office addresses in Los Angeles and New York,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On-Campus, On-Line, Blended).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면 설교 부담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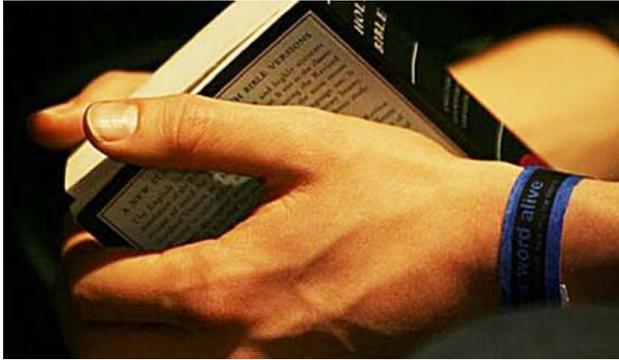
리더십저널, 뉴라이프넬로우십교회 스카치로 목사의 10가지 설교 체크 포인트 소개

나는 어릴 때 교회에 다닌 적도 없었고 설교를 들은 적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대학생 때 그리스도께 나아갔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고, 신학교에 갔다. 설교 수업시간 생각이 난다. 설교학 시간에 들은 조인은 내게 마치 사울의 갑옷처럼 느껴졌다. 내게 맞지 않았다.

1987년에 우리는 퀸즈로 가서 뉴라이프넬로우십교회를 개척했다. 1995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17년이 된 해였고, 우리 교회가 8년이 된 해였으며, 그리고 내가 지치기 시작한 해였다. 정말이지 나는 기진맥진했다. 만사가 불평스러웠다. 뉴욕시에도,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도, 성도들도, 그리고 가난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큰 꿈이 있었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으며, (불안했지만) 설교를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지?” 목회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갈수록 영적 위기는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악담과 분노와 앙심이 가득 찬 못된 목사가 되어버렸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주시길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분명 더 이상 목사이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 더 이상 그



리스도인이고 싶지도 않았다.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목사라면 상상이 갈 것이다. 어느 주일,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일어나서 설교하러 갈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래.”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가 다시는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교회도, 목회도, 설교도 던져버렸다.

내가 두 번째 회심을 한 것이 바로 이 위기의 때였다. 건강한 감성과 성숙한 영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감성이 비성숙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감성적 유아상태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삶에는 복음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음에도, 바로 그런 내가 신앙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양육하겠다고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장피하고 부끄러웠다.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결국 기독교 상담사를 찾았다(상담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는 내 삶을 들여다보는 깊은 내면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감성적 건강을 찾기 시작했다. 감성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이 지속적인 경험으로부터, 나는 설교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냈다(Peter Scazzero, “Ten Questions to Guide Every Preacher”). 이 10가지 질문은 목회자 본인이 영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진정한 영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듣는 설교를 하게 해줄 것이다.

1. 나의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목상에 기초하고 있는가?
 2. 나의 설교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3. 나의 설교로 나의 가족을 비취보고 있는가?
 4. 나는 설교할 때 나의 약함을 이야기 하는가?
 5. 나의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가?
 6. 나는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나를 맡기고 있는가?
 7. 나는 시간을 들여 적용을 분명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가?
 8. 나의 설교 주제가 성도들에게 복잡하거나 난해하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있는가?
 9. 나는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고 강해를 하고 있는가?
 10. 나는 설교 메시지를 우리 교회의 미래와 연결하고 있는가?
- 목사인 우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설교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방식도 아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있다.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정성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의 사용과 기능들이 발전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들이 편의를 더해가지만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바꾸어 보고 유행도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추구하는 본질적인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역정을 내도 남편/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렇고, 사회가 온통 그렇습니다. 그 모양이 늘 그 모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성들이 점점 더 황폐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점점 회의감과 절망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구의 한 모퉁이, 우리 조국 춘천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C채널 '오직 주만이' 프로그램에서 춘천 한마음교회 340명의 성도님들이 간증한 것을 Youtube를 통해 확인해보십시오. 게임 중독자, 조폭, 지독한 안티크리스천, 온갖 열등감과 좌절에 시달리던 분, 인생파산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변화되었을 때에도, 술 취한 것 아니냐며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행2:13), 우리 곁에도 아직은 못 미더워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심자기를 죽음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도 작은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원지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자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심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자가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심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 합시다. 예수님께서 심자기의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2, 2:32, 3:15, 4:2, 4:33 등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심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롬14:9).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비로소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진정한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주님께서 비로소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3월 8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시계 오전 2시를 3시로 돌려야

올해 서머타임은 3월 8일(주)부터 시작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주말에 배에 늦지 않도록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을 돌려 놓아야 한다.

(1면에서 계속)

미 인구에서 오직 9%밖에 되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선거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지난 중간선거에서 78%나 참가했는데, 이는 평균 미국인들의 선거 참여율인 49%에 비하면 거의 30% 이상이나 된다. 결과적으로, 11월 선거에서 상하원 의석수 재조정에서 17%나 되는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의 힘이 작용했다.

3.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이나 소도

시에 살고 있다.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대부분 도시보다는 한적한 시골이나 조용한 소도시에 산다. 주거 환경을 묻는 설문에서, 41%는 시골 지역에 살기를 바라보고 있고, 35%는 소도시 그리고 불과 4%만이 도시를 선호하고 있다.

4. 신앙, 근면 그리고 자녀 양육이 우선순위다.

보수적인 미국인들에게 자녀 양육은 최우선순위가 된다. 61%가 우선

순위로 자녀 양육을 손꼽았고, 59%는 신앙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44%는 근면에 가치를 두고 있다.

5. 보수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미디어는 팩스 뉴스다.

여러 미디어 매체들 중 정치와 현안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TV 뉴스 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7%의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팩스뉴스(Fox News)를 인용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팩스 뉴스를 통해, 정치 현안들과 정점 그리고 정부 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뉴스 신뢰도를 묻는 설문에서, 88%는 팩스 뉴스를 선정하고 있을 정도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팩스 뉴스가 정론을 펼치는 뉴스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오직 7%만이 팩스 뉴스를 공정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신학교들은 예비 목회자들이 소명 받은 대로 교회나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는 대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든 코벨은 정치기 교육, 펀드레이징 그리고 학비 전액 장학금을 마련해, 참가하는 신학생들에게 지 교회로부터의 지원과 펀드를 매칭해주고 있다. 루이스빌 신학교는 2015년 가을 학기까지 모든 석사 과정에 전액 장학

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있다. 루터교단 신학교들 역시 신학생들에게 전문 재정 코치들을 통해 학비, 식비 등등의 소요되는 비용 산출과 지교회로부터의 보조나 근로 장학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학교들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릴리 재단(Lilly Endowment) 역시 학자금 상환이 초보 목회자들과 신학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

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랜트를 제공해 신학생들로 하여금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27개 교단을 대표하는 67개 신학교가 릴리 재단에서 들어오는 그랜트를 받고 있다.

신학교들 또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건축 재정과 함께 다른 재정적 공급처를 모색하면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론으로, 지난 10년 동안, 소수 신학교들은 오히려 학교의 재정 상태를 40% 이상이나 신장시켰다. 이들이 펼친 재정 해결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분모가 있었다: 재정 결손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았고, 이사회, 학교 행정국, 학생들, 교수진들과의 빈번한 모임과 네트워크, 효과적인 재정 후원자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결정적인 재정 난국 타개 해소 전략들을 갖고 있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중서부에 위치한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는 (PCUSA 교단) 창립 45년의 전통과 더불어 1세와 2세교육의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한 신앙공동체의 회복,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헌신하실 목사님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격조건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 이상의목회경험(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이중언어가가능하신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본인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 계획서
3.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5. 추천서 3부 (목회자 2명/평신도 1명)
6. 최근 6개월내 설교 3회분 (영어1회포함-CD/DVD)

제출마감일: 2015년 4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출처: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청빙위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5909 N. Rogers Ave., Chicago, IL 60646 Email: office@kupc.org

기타: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5909 N. Rogers Ave., Chicago, IL 60646
Tel: 773-283-3377 www.kupc.org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그리운 삼겹쥬

‘오악, 우리 이제 죽었다.’ 이것이 우리 삼총사의 첫마디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게는 절친한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키도 비슷했고, 비슷한 시기에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와서 같은 학교와 교회를 다니며 늘 같이 놀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토요일 밤에 신문사(LA

Times)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며 삼총사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밤새워 일하는 것이니 공부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하며 설득하는 친구의 유혹에 저와 다른 친구는 아무 저항 없이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큰 창고(warehouse)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주말판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커버, 스포츠, 비즈니스, 금융, 연예, 구직, 여행 등 신문의 여러 섹션을 순서대로 쌓아서 끈으로 묶는 단순노동이었습니다. 광고까지 포함된 주말판 신문은 그 두께가 옐로우페이지(Yellow page)처럼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우리 셋 외에도 4-5명의 청소년이 함께 일을 했는데 서로 손발이 척척 맞지 않으면 선데이(Sunday) 새벽 배달에 맞추어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주말이면 숙된 말로 죽는 날이었지요. 신문을 끈으로 묶는 대신에 비닐봉지에 넣는 엑스트라 수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밤10시에 창고에 들어가서 주일 새벽 5시까지 운송에

뛰어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밤새 신문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몸의 자연 공기청정기(콧털)도 잡아주지 못하는 먼지들로 입안과 콧속은 도배되었고 피부도 점점 까칠해졌습니다. 우리는 꾀죄죄해졌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모든 일이 끝나면 ‘오악, 우리 이제 살았다’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신문이 동이 트기 전에 우리의 손을 거쳐 완전히 정리되면 삼총사는 마치 개선장군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차를 몰고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핫 초콜릿 한잔을 마시며 황홀한 일출을 보곤 했습니다. 물론 신앙심(?)이 좋다고 자부했던 우리들은 밤샘을 하고도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설교시간에

깊은 잠을 선물로 받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멧돼지 키만 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겁도 없이 무슨 일이든지 담벼락고, 그러나 공부도 제법 했던 고등학교 1학년생 삼총사들은 그 당시에 별로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백인 청소년들이 텃세를 부리는 창고에서 일하기 싫었지만, 혼자서는 밤새워 신문 묶는 막노동이 고달팠지만, 혼자서는 개선장군같이 당당할 수 없었지만, 혼자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변까지 가서 일출보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세 명이 함께 할 때는 그 모든 약점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나라 속담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쥬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미약하나마 서로 힘을 합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질 수 있으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50대 중년이 되어 각각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삼총사들이 어느 새벽, 다시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핫 초콜릿을 마시며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푸 / 른 / 초 / 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고 그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 그 집에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집에 계시니” 본문의 이 집을 The amplified Bible은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고 주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베드로의 집 앞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버나움 회당의 터나 기둥들은 남아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예수께서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계신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집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은 닫혀져 있습니다. 예수를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 놓은 집이 많습니다. 문을 굳게 닫아두니 예수는 밖에 계시 수밖에 없습니다(계 3:20).

어떤 때 예수는 우리가 초청을 하지 않아도 집에 들어오시는 수가 있습니다(눅 24:36/예수 부활 후 11제자와 다른 문도들이 집에 있을 때). 그러나 예수는 항상 “들어오시도록” 하는 초청을 받아들이십니다(눅 24:29/엠마오로 내려가든 두 제자가 예수를 강권해서 유하게 함).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계 3:20). 공기가 반곳에 채워지기 위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은혜와 교훈을 배우

려고 합니다.

1. 예수는 황송하게도 집에 들어와 주십니다(1). “예수께서.....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계 3:20). “지존 무상 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 하는 자가 이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15).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도록”(계 3:20)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자고 하십니다. 구유에 누우셨든 주께서 초라하고 가난한 자를 지나가지시 않으실

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주 예수께서 황송하게도 내 마음속에, 내 집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다. 문을 열시라! 통회함으로 열시라! 겸손하고 황공한 마음으로 열시라!

2.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집을 채우십니다(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내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사람을 끌기 위한 세속적 오락이나 접대가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예수와 함께 새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집을 친히 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의 욕구와 갈망을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집에 예수 계시게 합시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실

뿐 아니라 집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람을 끌려고 하지 마시다! 예수로써 사람을 끌어들이시다!(문을 여는 법/성경예독, 기도, 회개, 겸손, 예수사모, 은혜사모, 주의 일하기 원함)

3.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그의 계신 소문이 퍼집니다(1).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1)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 없는 것같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밤새 없는 잠, 빛깔 없는 황금, 빛 없는 태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미 있는 곳에 밤새가, 황금을 색깔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광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발산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만 하면 사랑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온집해 옵니다.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관능, 기사이적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온집해 옵니다.

예수 계신 소문이 퍼져 나가게 합시다!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게 합시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연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4. 예수께 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4).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과 밖을 둘러보고, 문이 막혀 있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앞길에 방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할 때에 그에게 길을 터주지는 아니하고 자기의 구습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고집 세고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꼭 자기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합니다. 규칙적으로 헌금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무리들처럼 중풍병자와 같이 구원 받아야 할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을 낙담케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밖에 모르는 경건생활은 사실에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우리의 대부분이 남에게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신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5.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

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길과 문을 막아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께 달아 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집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데려왔을 때 들어갈 수 없거든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께 가게 하십시오! 출입문 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거든 벽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올리고 달아 내리십시오! 사람들이 “믿으라”는 말을 깨닫지 못하면 “오라”고 하십시오!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여러분이 친히 그 사람에게로 가십시오! 비난하는 사람이 떠날거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들이 이웃들이 지붕을 뜯는(부수는) 광신자라고 여러분을 비난할 쥬도 모릅시다. 그러나 죄로 병든 영혼들이 구원 받는 데 그 비난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자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협력을 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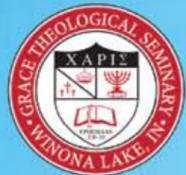
6.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데려다 주어야만 그리스도께로 옵니다(3).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만일 이 병자가 네 사람들이 메고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병신으로 살다가 병신으로 죽었고 결코 예수로 말미암아 고쳐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예수께 데려가기 위하여 4가지가 필요합니다.

(1)하나님의 율법 (2)하나님의 성령 (3)하나님의 말씀 (4)하나님의 종

7. 사람이 구원 받아야 할 것을 진실로 열망하면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예수께서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2:1-12)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현대인들은 심각한 소외감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 한국의 잡코리아가 국내의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73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사회적 박탈감 또는 소외감 체감 여부'에 관해 설문한 결과는 한국의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사회적 박탈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직장인 46.2%(339명)의 응답자가 '사회적 박탈감 또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그 정도는 30대 직장인에게서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 '경제적 소득격차를 느낄

는 광고를 보고 오는 사람이 3%이고, 친구의 초대로 오는 사람이 65%라고 했다. 미국의 대형교회들도, 한인교회들마저도 비슷한 추세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한다. 왜 그러한가? 물론 사회의 유행성이 증거하면서 이종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의 이동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인구 이동률이 낮은 것이 선진국형화 되는 것이다. 지

이 충족되어도 소외감을 느끼면 만족하지 못한다. 소속감은 근본적인 욕구이다 (창2:18). 아담에게 하와를 주심으로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속감에 대하여 두 가지 방향성을 주셨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에게 속하게 만드셨다. Stanley J. Grantz도 "하나님의 신적인 활동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주의 계획하신 공동체로 이끄시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죄는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했다. 죄의 결과는 인간관계에서는 소외감이고, 법적으로는 범죄이고, 개인적으로는 타락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체험장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은 효과적이다. 사단은 두 가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첫째

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보여주는 인식론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신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등의 수많은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힘과 위로를 준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수직적 소속감은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행 5:41). 성도의 능력은 수직적 소속감에 있다.

둘째, 수평적 소속감은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소속감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에게 속하도록 창조하셨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2:18)"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건강한 공동체로의 초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때'가 47.5%로 가장 많았다. 2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모두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1위로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현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소외감이다. 현대사회처럼 서로 연결되어진 시대는 없었다.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이다.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다. 글로벌(Global)시대이다.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느끼는 소외감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 IS에 참여하려 한 한국인 청년도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마음 아파.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학자들은 현대인의 이동성을 말한다. 사람들은 직장을 1-2년마다 한번씩 옮기면서 신분과 급여의 상승을 추구한다.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 성도들에게 평생 섬기는 교회가 사라져간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평생을 걸쳐서 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 물론 직장을 따라서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David Pederson은 한국의 교회들의 새신자 중에 70%는 3년 내로 교회를 떠나고, 대부분 교회의 새신자

는 2010년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이동율은 16.5%로 선진국인 미국 12.1%나 일본의 4.2%에 비하면 높지만 많이 낮아지는 편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이동율은 인구의 이동률이 아닌 다른 요소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공동체 개념의 상실화이다. 옛날은 지역교회 커뮤니티 Community 공동체 교회였다. 몇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던 시대도 있었다. 지금은 그러한 헌신적인 신앙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자기의 평생의 교회'라는 의식은 사라져간다. 오늘은 지금은 섬기지만 언제고 떠날 준비가 되고 떠날 각오가 되어있다. 모든 것이 즉시 되어야 한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이다. 마이크로 오븐 문화, 리모콘 트롤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떠난다. 한 백화점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백화점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직장을 따라서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David Pederson은 한국의 교회들의 새신자 중에 70%는 3년 내로 교회를 떠나고, 대부분 교회의 새신자

는 가정 공동체이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이다. 사단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돌아갈 공동체를 없애는 것이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가 악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소외감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한다. 교회에서 느끼는 문화적 세대차이는 동질감 대신에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나와 다른 것을 느낄 때에 외로움이 생긴다.

하지만 소속감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준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을 때에 그토록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문화와 사람들의 차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모든 나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도 소속감은 중요하다.

소속감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수직적 소속감과 수평적 소속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속감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인간은 소속감의 존재이다.

첫째, 수직적 소속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소속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

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평적 관계의 클라이막스인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속해 있다.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부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한다. 물론 다른 사회적 인 조직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만 교회와 가정에 대한 소속감은 다른 모든 소속감을 뛰어 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IS를 찾아서 달려가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받아 줄 그리고 사랑해 줄 건강한 공동체가 없어서 외치는 절규는 아닐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우리의 교회와 소그룹과 가정을 소외감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자.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오늘날 이 세상의 두 가지 악의 축인 북한과 IS에 대해 질문합니다. 북한 핵무기가 만약 LA에 떨어진다면 그 핵의 위력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IS격퇴를 위한 미국 지상군 파병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꼭 파송해야 하는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목사

A: 첫 번째 악의 축인 북한은 2010년도에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앞으로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곧 미사일에 달 소형 핵무기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100개 정도를 보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앞 바다까지 침투해서 잠수함으로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비대칭 전력으로 불립니다. 전차나 대포, 함정과 같은 기존의 전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단 한발만 사용해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핵폭탄 투하되면 반경 2-4km내 몰살 미 지상군 파견되면 새로운 양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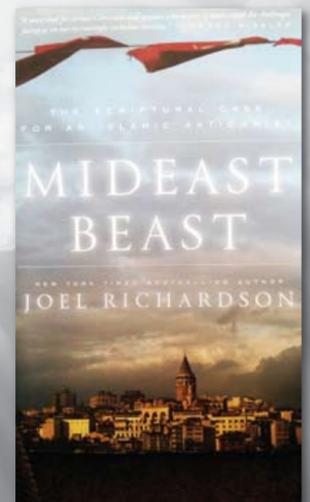
핵무기는 핵물질에 따라 크게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라늄탄은 천연상태에서 농축공장에서 고농축하여 얻어지는 U-235를 사용하고 플루토늄탄은 원자로에서 인공적으로 저농축하여 만들어지는 원소인 PU-239로 만듭니다. TNT 2만톤급에 속하는 20kt 규모의 핵폭탄이 터지면 반경 2-4km 안에 있는 사람은 폭발의 열로 화상을 입어 100% 다 죽고 건물도 다 파괴됩니다. 만약 LA에 핵폭탄이 터진다면 반경 40km정도 떨어져 있는 제가 사는 이 토렌스에서도 핵폭탄 터지는 것을 보면 눈에 바로 망막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낙진 피해도 심해 40km 이내는 다 환경오염이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두 번째 악의 축인 IS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아프리카인 리비아도 점령하려고 곧 이탈리아 로마 유럽도 IS가 정복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로마로 IS가 가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십자군이라며 알라의 적이라고 목을 따서 다 죽이고 생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IS 대원이 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IS 대원이 되면 수도 전기사용료가 무료인 집을 공짜로 받고 사후에는 더 큰 보상을 받는 다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와 소녀들이 악마적인 IS에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IS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제 4월에는 미국의 지상군 파견이 전개되면 새로운 양상이 전개됩니다.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칼빈주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IS를 놔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중동의 모든 교회는 불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복음주의 기독교와 극단적인 이슬람과의 한판 전쟁입니다. 영적전쟁과 육적 전쟁입니다. 우리 미국교회들도 경성하고 회개하고 경성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장차 IS와 싸울 미군들과 펌박 중에 있는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 4차 종말론 핵심 세미나

“중동심승” 이슬람적 그리스도론의 성경적 근거 (다니엘 2,7,9,11, 계 17, 경 38,39장)
(요엘 리차드슨: "Mideast Beast")

- 일시: 2015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오후3시
- 장소: 주 예수 사랑교회(강유남 목사님)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201)941-5555
- 대상: 목사, 사모, 전도사, 사명자
- 강사: 정진욱 목사
http://blog.daum.net/pastorjeong
(908)265-2766, pastorjeong@hotmail.com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다누와르 라이(Danuwar Rai)



네팔의 작고 독립적인 왕국은 인도와 티베트 사이 히말라야의 남쪽 비스듬한 산을 따라 위치해 있다. 대략 110개의 부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종족이 자신의 구별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주업이 농업으로 대부분 생계를 위해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난하며 미발달하다.

다누와르 라이는 동부 네팔의 가장 큰 종족인 라이로서 알려진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있다. 라이 종족의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자신의 언어로부터 대부분 그들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혼합된 방언까지 변형돼있다. 비록 그들 얼굴의 특징들이 다소 몽골인과 같을 지라도 다누와르인은 몽골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지구의 딸인 니나, 마하에바, 마라마의 여성들의 후손들이라고 믿는다.

삶의 모습

다누와르 라이인들은 기본적으로 쌀을 경작하는 농민들이다. 그러나 빈약한 기술의 지식으로 인해 생산량은 현저히 부족하다. 낮은 지역에서는 쌀을 경작하고 높은 해발에서는 감자와 옥수수, 밀과 보리를 재배한다. 남성들은 밭을 갈고, 여성들은 씨를 뿌리는 것을 돕는다. 가족들은 추수시기에 각기 서로를 도와 단결한다. 농부들은 잉여 농산물을 거래하고 등유와 소금과 같은 필수품을 얻는다. 다른 사람들은 공예품과 재단업으로부터 부족한 수입을 공급한다. 다누와르 라이는 전형적으로 초가지붕으로 덮여진 돌 또는 나무집에서 살아간다. 집은 대부분 바깥쪽에서 나무 천장이 있다. 대체로 라이족은 용감하고, 대담

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왕실 네팔군대의 일원으로 용감함에 대한 세계적 존경을 받아왔다. 그들은 군에 입대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편 존경을 받고 영웅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군에서 높은 위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라이 민족 사이에서 결혼은 매우 축제적인 의식이다. 때로는 결혼의 세부적인 것을 준비하는 콩피(kongpi) 또는 middlemen에 의해 쉽게 준비된다. 선물은 가족에게 주며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결혼식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소녀의 "arranged kidnapping"에 의해 준비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결혼 선물은 신부와 신랑의 부모, 가족 구성원과 마을의 원로에게도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돼지나 수탉의 동물 희생의식이 결혼식에서 행해진다. 고기와 술은 풍부하게 제공되며 인기 음료는 보리와 감자를 만든 것이다. 그들은 종종 밤을 지새우며 노래하고 축제를 한다. 신앙 왕족을 포함한 네팔인구의 90%는 힌두교 신자다. 그러나 불교신자도 존재하며 섞여있기도 하다. 다누와르 라이의 대부분은 힌두교 신자다. 그러나 또한 불교신자들과 정령숭배자들도 있으며 그들은 지역신과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다. 이러한 혼합된 신앙은 다양한 종류의 신들과 예배행식을 만들어 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은 오랫동안 세상에서 등지고 있던 국가였다. 정부는 전도의 어떤 형태도 강력히 규제하고 복음의 확산을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천임을 공표했을 때 주어지는 형벌은 가혹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맹은 이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아마도 크리스천은 교사로 네팔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누와르 라이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 또는 예수 영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 한 선교단체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만 크리스천은 19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IS, 시리아 기독교도 29명 석방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북부에서 납치한 기독교도 220여명 가운데 29명을 석방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1일 밝혔다. SOHR은 IS의 자체 법원이 납치된 기독교도를 풀어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석방되지 않은 나머지 기독교도들은 IS가 설치한 샤리아(이슬람율법)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S는 지난달 23일 시리아 하사카주 북서지역 탈타미르의 마을 11곳에서 소수 기독교 종파인 아시리아 기독교도 220여명을 납치했다. IS에 납치된 아시리아 기독교도가 262명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레바논의 누드 마즈누크 내부장관은 아시리아 기독교도가 IS를 피해 레바논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즈누크 장관은 5000명 정도의 아시리아인이 레바논으로 탈출해 진척적이거나 교회 측이 제공한 가족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우디, 코란 찢고 이슬람 부정 20대에 참수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란을 찢고 이슬람 신앙을 부정한 20대 청년에게 참수형이 선고됐다. 24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의 매체에 따르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찢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20대 남성에게 참수형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대로만 알려진 이 남성은 이날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에 위치한 하프르 알바틴 시의 샤리아 법원으로부터 이슬람 신앙을 저버린 혐의로 참수형을 선고 받았다. 현지 신문인 사우디 가제트는 "이 남성이 비디오에서 신과 예언자 무함마드를 저주한 뒤 코란을 찢고 신발로 내리쳤다"고 말했다. 이슬람권에서 배교 행위에 대해서는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이행이 되지 않는 않지만 사형이 일반적



인 처벌이다. 이 남성은 항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회개 행위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사우디 왕실의 차기 왕위 '2순위'에 해당하는 부왕세제에 임명된 무함마드 빈나예프 내무장관의 영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인권단체들은 영국 정부가 빈나예프 부왕세제의 방문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이슬람 가치에 어긋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진보적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1000대를 선고하고 지난달 9일 1차로 50대를 집행해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센터키주 법안 논란

성전환 학생은 학교에서 원래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센터키 주 의회를 통과했다.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이 같은 법안이 지난 23일 주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8표, 반대 1표로 통과 후 상원 전체회의로 넘겨지면서 차별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작년 센터키 주 루이스빌의 A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하는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학생 화장실과 라커룸의 사용을 원했다. 학교와 카운티 교육당국은 학생이 자신의 '성 인지'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채택했다. 이 학생에게 여학생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부 여학생이 이 사실을 불편해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달 주 상원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난 학생은 남학생 화장실, 여성으로 태어난 학생은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는 사위실과 라커룸에도 적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학교가 성 인지보다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별도의, 사적인 공간을 학생용 지정 공간으로 제



공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교육위에 상정됐으나 상원 전체회의 제출에 필요한 7표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보류됐다가 23일 재심의 후 통과됐다. 이 학교의 2학년생인 K양은 "몇몇 여학생은 학교의 방침이 불편한데도 학교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인데다, 친구들의 판단이 두려워 밖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다른 고등학교의 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나는 스스로를 남자로서 인식하는데 학교가 여자 화장실 사용을 강요했다"면서 "법안 통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의 레지널드 토머스 주 상원의원은 과거 백인이 흑인과 같은 화장실 쓰기를 꺼렸던 과거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 예상되나, 민주당이 다수인 주 하원에서는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자폐소년 생일파티...

자폐를 가진 여섯 살 소년의 생일에 기적이 일어났다. 미국 ABC뉴스는 자폐증과 간질을 앓고 있는 6세 소년 글렌 버라티의 특별한 생일파티를 23일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오스체 올라 카운티에 살고 있는 글렌은 최근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아 반 친구들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냈다. 모두 16명의 친구를 초대했지만 생일 당일 글렌의 집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망에 가득찬 글렌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에슐리는 고민 끝에 오스체올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16명의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불쌍한 아이. 글렌은 계속 '내 친구들은 언제 와요?'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글렌의 안타까운 사연은 일파만파 퍼졌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지역 방송국과 경찰들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오스체올라 보안관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직접 돈을 모아 선물을 마련하고 글렌의 집으로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헬리콥터는 글렌의 집 상공을 20분간 머물며 생일을 축하했다. 생일파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파티 주인공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보안관들은 며칠 뒤 경찰차, 소방차, 스왓(SWAT) 차량 등을 끌고 와 글렌에게 구경시켜주기도 했다. 에슐리는 "그들은 단지 글렌의 생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모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며 "집을 방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IS, 시리아 기독교도 최소 150명 납치...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집트 콤프고도를 잠수한 데 이어 시리아 기독교도를 집단 납치하면서 중동 지역 소수종교 신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IS는 23일 시리아 동부 하사카 주 소도시 탈 타미르 인근을 급격히 여성과 어린이 등 최소 150명의 아시리아 기독교도를 납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급격 과정에서 4명이 숨졌으며 수천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납치된 이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19세기 말 쿠르드족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아시리아 기독교도가 모여 살던 곳으로, IS는 쿠르드군과의 교전 끝에 인근 마을을 빼앗고 주민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IS는 납치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24일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무장대원들이 '심자군' 수십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심자군은 통상 IS가 기독교인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앞서 IS는 지난 15일 리비아에서 인질로 붙잡은 이집트 콤프고도 21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콤프고는 정교회에서 갈라져 나와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다. IS는 '심자가 국가에 보내는 피로 새기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탈리아 로마를 겨냥해 "로마를 정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로아스터교(배교), 기독교, 이슬람의 교리를 혼합한 고유종교를 믿는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역시 IS의 박해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IS는 지난해 여름 이라크 북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야지디족 수백명을 살해하고 여성을 납치해 성 노예로 삼았다. 이외에도 IS가 모슬을 장악할 당시 이라크 칼데아 가톨릭교회 신도 수천명이 레바논으로 도망쳤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담임 목사 청빙

달라스연합교회 공동체는 1966년(49년 전)에 창립되어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위치하며 이민 목회에 비전과 소명으로 교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 지원 자격 1.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따르는 목사 2. 정규신학교 신학대학원(M. Div. 이상)을 졸업하신 분으로 3년 이상의 이민목회 경력(복무사 포함)을 포함하여 총목회 경력이 5년이상 되신분 (미국 정규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 기간을 이민목회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연령: 만40세 ~ 만55세 4.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분 5. 이중 언어(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과 설교에 불편이 없으신 분 6.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자필 이력서 (신력, 학력, 경력 포함) 2. 목사안수증명서와 최종학위증명서 3. 자기 소개서와 교회론및 목회관 (각각 1000 단어 이내) 4. 최근 설교동영상 3회분 (DVD or Web link 등) 5. 추천서는 2명이상 (밀봉날인과 추천인연락처 요)

- 제출 방법 1. 우편주소: The Korean Church of Dallas Attn: Pastor Search Committee 1855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2. E-mail : chong.c@sbcglobal.net (위원장), davidkim.kcd@gmail.com (서기) 3. 제출마감: 2015년 4월 30일

- 기 타 1. 제출서류는 우편 혹은 이메일에 첨부(PDF파일)로 먼저 보내주시고 E-mail (chong.c@sbcglobal.net와 davidkimkcd@gmail.com)로 자신이 보낸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필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www.yonhap.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스연합교회 청빙 위원회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를 모십니다

1.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

-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신 분
- 교사들을 지도해주실 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
-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lapc2@sbcglobal.net)이나 전화(323-954-884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Los Angeles Presbyterian Church)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성경의 정경화 (3)

이단이란? 한자로 보면 '끝이 다르다'는 것이다. 속임과 혼동을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이 기준인가? 성경이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에 도전할 일이다.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놓는다. 특히 특정한 이단은 구약과 신약을 분명하게 구분한 후, 한 쪽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창조이후 타락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질문: 그렇다면 나는 교회가 '정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단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이단의 출현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다. 결국 예수는 그들의 손에 의해 죽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초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자들이었다. 물론 사도들은 전원 유대인들이었다.

유대교 출신 초기 초대교인이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신앙적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구약

과 신약의 관계였을 것이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버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구약이 없는 신약을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의 내용에 매우 익숙하였다. 그 결과 아담 이후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계획,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

다 이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사도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본받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교훈을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초대교회의 출범과 함께 이단이 출현하였다. 아직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한 상황 속에서 생긴 일이다. 그러나 이단이 출현하여 이런 초기 초대교회의 신앙을 도전 이후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계획,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

여 물질은 악한 대신 영혼을 선택하고 주장하였다. 물질과 영혼의 대립의 구도는 영지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가현설(Docetism)을 주장하게 하였다.

마르시온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그들의 '두 종류의 하나님'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들은 물질의 세

운의 주장에 맞서서 대항하였다. 프톨레미(Ptolemy)는 150년 경에 '플로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르시온이 소개한 '악한 하나님'을 반박하였다. 그는 창조하신 하나님은 곧 율법을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스틴 마티(Justin Martyr) 역시 153-154년에 저술한 '첫번째 반박문'에서 마르시온의 '이원론'을 거론하였다. 그는 악한 마귀의 영이 마르시온

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순서로 신약 성경을 정리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 나름대로의 누가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복음서를 정리하였다.

마르시온이 '정경'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그의 '신학사상' 만큼이나 초대교회에 큰 자극을 주었다. 속사도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를 도전하는 이단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심어주었다. 나아가서 그들은 올바른 성경관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저스틴 마티(Justin Martyr)는 160년경에 작성한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구약과 신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긴장관계가 아닌, 아브라함 이후로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마르시온의 '정경' 이후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하여 활발한 신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속사도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마르시온의 '정경' 이후 구약과 신약 관계의 신학적 연구 시작 신약은 구약(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약속과 성취 개념으로 이해

민을 통한 세상의 구원에 대한 남다른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확신하였기에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성경은 신앙의 모태와 같은 것이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외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시작된 신약시대의 모든 사건은 '구약시대의 연속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예수도 성경의 뜻을 풀어 설명하실 때

속였다. 특히 마르시온이란 이단의 주장은 '정경화'의 과정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 마르시온의 '두 하나님'

마르시온(Marcion)은 초대교회의 '정경화'를 가속시킨 이단을 연 구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다. 흑해의 남쪽 해안 출신으로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의 신학적 배경은 영지주의(Gnosticism)이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사상을 유대교 또는 헬라 및 동양철학과 섞어놓은 혼합주의적 성격을 지닌 종교적 사상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이원론'에 입각하

게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과 물질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낸 '더 높은 하나님'으로 구분한 것이다. 마르시온은 이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 '악한 하나님'과 '선한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하였다. '악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한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선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궁극적으로 선한 하나님'이다. 결국 그는 '선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존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마르시온은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었다.

초대교회의 속사도들은 마르시

온을 공격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였다고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 마르시온의 성경

마르시온은 '두 하나님' 사상에 근거하여 문서들을 수집하였다. 아직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경 목록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먼저 자의적으로 편집한 '정경'을 내놓았다. '악한 하나님' 사상은 그에게 구약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갈등을 인정하는 서신서만을 진정한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

■ 성경이 보인다 - 사도행전 2장, 7장, 13장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설교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베드로, 스테반, 바울의 설교에서 발견하는 공통점이다. 더욱이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소개한다. 신약은 구약의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가정사역 칼럼



다시 뛰는 할아버지!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늘고 있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커뮤니티 센터나 교회마다 경로대학이나 경로

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기술(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기, 스마트폰 사용

법 등)을 가르쳐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사회적 관심이나 활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인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재미있는 책 두 권을 받

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다시 뛰는 할아버지"란 제목으로 상 하 양편의 책이었다. 저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신동수 목사님(올해 70세)이신데, 노년기를 맞아 자신의 삶을 여전히 알차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딱 3년만!"이란 제목의 장에서 신 목사님은 김에리씨의 "책에 미친 청춘"이란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딱 3년만 전혀 여한이 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3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일든 여한이 없게 3년만 몰입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후시 살아갈 날이 얼마 남

지않았다면 더욱 3년만, 딱 3년만 전심전력으로 매진해보라! 행여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에 평생을 매달려 살았다면 지금부터 딱 3년만 한 가지 일에 몰입해보라! 가장 귀한 일, 가장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에 딱 3년만 혼신을 담아 매달려 보라! 기왕이면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할 가장 귀한 일에 딱 3년만 최선을 다하고 가십시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늦은 나이에 부름 받아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가족 이민을 시작했으며, 모세는 80세에 노예로 살

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소명을 받아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사명을 이뤘고, 갈렙은 80세에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겠다고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된다.

어르신들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나 간에, 과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든가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의 끈을 조여매고 달려 나가는 어르신들의 삶을 보고 싶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소속, 주 사랑 장로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 | |
|-----|--|
| 자 격 | 1. 이민 목회에 소명이 있고, 2세 교육에 사명과 비전이 있는, 만45세~55세에 해당하시는분
2. 4년제 대학을 졸업후에, 정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 석사 이상의 과정을 졸업하신분
3. 인정된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 가능한분
4. 미국거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
|-----|--|

- | | |
|------|--|
| 제출서류 | 1. 한글 및 영문 이력서
2. 본인 소개 및 목회 소신서
3. 신학교 졸업 및 목사 안수 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전의 설교 CD 혹은 동영상(DVD, 웹사이트 주소) 2편
5. 가족 사진 첨부된 가족 소개서
6. 추천서 (2인) 반드시 추천인 자필 서명
7. 현 시무 교회 주보 |
|------|--|

- 제 출 처** 주사랑 장로 교회 청빙 위원회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209-08 48th Ave Bayside, NY 11364
- 서류마감** 2015년 4월 10일 까지
- 문 의** 담임목사 청빙 위원장
김성욱 (718-751-5556, seongwook.kim@prudential.com)
-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 장로 교회

www.joosarangny.org Tel. 718-229-8855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혜애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창조과학 칼럼 (225)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34) 프로제리아 신드롬

왜소증 환자(dwarf)는 아는데 아주 작고, 나이는 아주 적는데 90세 이상의 노인처럼 보인다. 심한 경우에는 마치 노인 인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보통 태어나서 한두 살부터 노화가 시작되어 보통 사람보다 8-10배나 빨리 늙어간다. 모든 장기나 혈관계들도 정상 발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13세 이전에 죽는다. 아무리 잘 돌보아도 20세 이상 사는 환자가 별로 없다. 이 안타까운 질병은 허친슨-길포드 프로제리아 신드롬(Hutchinson - Gilford progeria syndrome)이라는 조로 증이다. 간단하게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고도 한다.

신드롬이란 단어는 병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다양한 원인이 같은 결과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지난 2003년에 드디어 프로제리아 신드롬의 원인이 밝혀졌다. 유전정보를 싸고 있는 핵막(nuclear membrane)의 안쪽 벽에 lamin A라는 단백질이 있다. 프로제리아 신드롬은 이 단백질

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더해지는 경우인 삭제/삽입 돌연변이(deletion/addition), 정보의 앞뒤 순서가 뒤바뀌는 도치 돌연변이(inversion) 등이 있다. 이런 돌연변이들의 경우는 점 돌연변이

구에 쉽게 번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낫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산소를 운반할 능력이 거의 없어 빈혈로 고생하다 20대 초 이전에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연변이 결과로 물에 빠져 죽지는 않고,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 훗날은 몰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산을 필요로 하는 진화 이론에 의거해도 돌연변이는 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돌연변이는 기존의 정보를 감소시킨다.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통해 진화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진화의 필수 조건은 유전정보 증가다. 새로운 유전정보가 없으면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일단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기존에 없었던 정보가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수천만 년 동안 돌연변이가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종교나문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아이에게 참된 기쁨을 찾아주세요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표현할 때 기쁨의 가치를 아는 올바른 성품을 갖게 됩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이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쁨은 누구나 언제나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물론 주위에서의 역할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적이 유일한 기쁨?
지난해 공부도 잘하고 학급 임원으로 활동하는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모 지역의 청소년 센터에서 성품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성품교육을 고심해오던 중 직접 청소년을 교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쁨의 성품'을 주제로 토론하고자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기쁨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할 수 없는 풀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의욕도 없이 그저 봉사 점수를 받게 되는 교육정도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너희들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몰라요" "그럼, 너희들 언제 기쁨 적 있었는지 말해줄래?"
"없어요" "너희들 잘하는 게 뭐니? 내가 잘하는 것을 연습하고 장점으로 찾아서 키워나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 "없다니까요."
"기운 없이, 몰라요, 없어요"를 남발하는 아이들에게 난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언제 기쁨을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끝난다" 그러자 아이들은 마치 못해 임을 열었습니다. "수학시험 백점 받았을 때요." "영어시험 백점 받았을 때요."
저는 이어서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하나같이 '수학이요, 영어요, 사회요, 영어회화요'라고 말하더군요. 지역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에게 기뻐던 경험이라는 게 교과목의 시험 잘 봤을 때라니! 물론 임시 위주의 교육 풍토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야 할 이유
이처럼 기쁨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기쁨이 없게 되는 구나'하는 안타까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두어 시간의 강의로 아이들 모두가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도록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기쁨의 성품을 갖추어야 할 이유는 이랬습니다.
첫째, 기쁨은 스스로 귀함을 알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성품을 갖게 합니다. 좋은 음식을 가려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게 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을 성장시키는 배움을 기뻐하며 스스로 학문을 즐겨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하여 자신의 장점을 강점으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셋째, 기쁨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있는 리더가 됩니다.
이러한 기쁨의 성품을 부모와 교사가 주위에서 어떻게 대해주고,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들 스스로 대접할 수 있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점이기에 주위의 영향이 더욱 수박에 없습디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교사가 매일 매일 '너는 참 소중한단다'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 사소한 순간들에서조차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절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다.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조로증은 LMNA 유전자의 1824번째 염기인 C가 T로 돌연변이 된 경우 아담의 유전정보 복사오류인 돌연변이 빈도 따라 인간 유전병 속도 결정

이 정상기능을 하지 못해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질병이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으니 결국 조로증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 단백질이 정상인 것이 못하는 근본 이유는 그 단백질 정보인 유전자(LMNA)에 돌연변이(mutation)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돌연변이란 조상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유전정보가 복사될 때 잘못 복사되어 조상과 다른 정보를 갖게 되는 현상이다.



프로제리아 신드롬의 돌연변이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 형태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다. DNA 정보는 4가지 염기들(A, T, G, C로 표현)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프로제리아 신드롬의 경우는 LMNA 유전자의 1824번째 염기인 C가 T로 돌연변이 된 경우다. 이 돌연변이의 결과는 정상적인 lamin A 단백질이 아니라 이것의 불량품인 progerin이란 단백질이 만들어져 핵막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 돌연변이의 경우는 30여 개나 되는 염기 중에서 단 한 개의 염기가 잘못 복사된 경우이기 때문에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라고 한다.
다른 종류의 돌연변이들은 점 돌연변이보다 더 큰 정보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

염기를 바꾸었을 때 생명체가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 각종 돌연변이들은 생명체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떤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가 생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돌연변이로 날개 가 없어진 무당벌레가 바람에 밀려 물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된다는 경우다. 또 다른 이론은 돌연변이의 경우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겨 낫 모양의 적혈구가 되는 유전병인데 이 경우는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다. 말라리아균이 낫 모양의 비정상적인 적혈

을 계속된다면 그 중에는 이롭고 새로운 정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수십만 건의 과학적인 모든 돌연변이들 중에 유전정보를 증가시킨 경우는 단 한 번의 예도 없다. 모든 종류의 돌연변이들은 정보를 감소시키거나 하므로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아담의 타락 결과는 끊임없는 돌연변이 즉 끊임없는 유전정보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당연히 죽음이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완전했던 유전정보는 세대를 이어가며 복사되는데 그때마다 복사 오류 즉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돌연변이의 빈도에 따라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혹은 느리게 새로운 유전병을 갖게 될 것인지 결정되었지만 정해진 사실은 계속 더 다양하고 더 자주 유전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제리아 신드롬도 이 타락의 한 현상이다.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절대적인 쇠락의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의 문제로 결국 인류는 영원할 수 없고 반드시 초자연적인 구원자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p>	<p>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 www.lafgu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p>	<p>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213)388-7101, Fax: (213)388-6584</p>	<p>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el: (213)559-7728, Fax: (213)559-7728</p>	<p>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p>	<p>남가주주인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Tel: (213)481-2779,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리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www.scrdm.com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p>	<p>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둥원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Tel: (562)466-1234, Fax: (562)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Tel: (213)559-7728 (전화 박스 전용), Fax: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rea, CA 92603</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p>베델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8040, Fax: (562)690-8044</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v.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p>
<p>토론토주인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www.torrancecpc.org Tel: 310-370-5200, Fax: 310-370-2009</p>					



목회서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우리는 오늘날 기도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의욕과 열정이 다 식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삼각산, 용문산 등의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씩 뽑을 정도로 부르짖으며 기도들 했는데, 요즘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고, 정말 한 시간을 기도하기가 힘들 정도로 되었고, 금요 철야

기도는 소리없이 사라졌고, 새벽기도와 금식기도도 시들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인류역사상 가장 큰 대환난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지금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인데, 왜 기도를 못하고 있을까요? 경제위기로 인한 물질적 빈곤, 치유불능의 질병들, 사업의 실패와 파산, 부부의 갈등, 자녀 결혼문제, 노인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 우울증 등의 정

신질환에 사로 잡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같은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사탄의 배후조종에 의한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기도할 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가 기도상실, 즉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며,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1)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2)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 (3)하나님과의 만남, 교

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4)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5)위기가 온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6)매사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 (7)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잃게 된다. (8)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9)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10)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없다. (11)교만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 (12)마귀, 사탄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13)영적으로 죽었으므로, 잘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14)내 마음대로 결정하므로 만사가 불통, 실패하게 된다. (15)조그마한 일에도 시험에 들기 쉽다. (16)영적공격에 무방비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17)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기쁨, 평안을 받지 못한다. (18)꿈과 환상을 바라볼 수 없고,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19)영적으로 다운되어, 악한 영에게 눌려 힘을 쓰지 못한다. (20)문제와 시험 가운데 기도

할 제목이 자꾸 생겨난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기도할 힘을 잃게 되었을 때의 해결방안은 '기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기도의 중보자의 도움을 받거나, 기도의 그룹이나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7:7).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50:15).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에 약속한 것을 식언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꿈과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응답될 때까지 매어달리고, 도전적으로, 죽기 살기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받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에 문제가 없고, 기도하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불씨가 됩시다. 기도의 불길을 우리 가정과 온 교회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기도의 전사가 다 됩시다. 성령의 기름에 기도의 불씨를 붙여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아 신령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남가주 교계단체 일제히 3.1절 기념행사

OC-3.1절 기념 평화통일염원기도회, LA-삼일절기념예배 및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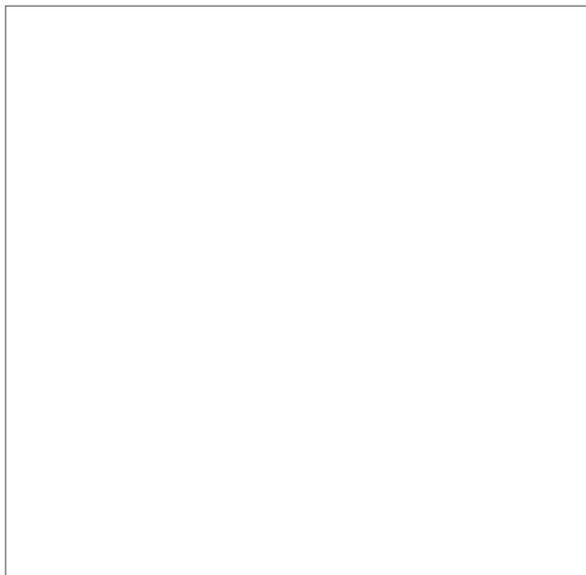
남가주 교계단체가 주관한 3.1절 기념행사가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각각 개최됐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열린 3.1절 기념 평화통일 염원기도회는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3월 1일 오후 4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OC교협(회장 김기동 목사), OC SD민주평통(회장 권석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윤덕근 목사(OC교협 부회장, OC SD민주평통 종교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민승기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가 대표 기도했으며, 김기동 목사가 '꿈꾸는 것 같았다'(시126: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권석대 민주평통회장과 김기동 OC한인회 회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으며, 김요한 목사(평화통일연구소장)가 북한실정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용덕 목사(OC교협 증경회장)는 '3.1정신회복(일본과거사, 위안부, 독도문제)과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이호우 목사(OC교협 부회장)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전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그리고 김영찬 목사(OC목사회 증경회장)가 '이민사회와 교회 및 차세대 정체성회복과 신앙계승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남가주교계단체가 주최하는 삼일절 기념행사가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렸다. 위 사진은 원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3.1절 96주년 기념 예배에서 헌금특송을 부르고 있는 에버그린 합창단, 아래 사진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린 3.1절 기념 평화통일염원기도회 모습

로 각각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와 더불어 열린 작은 음악회는 윤우경 집사(OC평신도연합회 회장, OC교협 부회장)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리옥 선교사(북한 선교사), 김일두 집사(갈보리선교교회

지휘자)가 북한노래와 한국가곡을 불렀고 이날 참석자들이 모두 '통일의 노래'를 부른 뒤 최승구 목사(OC 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LA지역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주최로 삼일

절 제96주년 기념예배 및 이민 112주년 음악회가 오후 6시30분 원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백지영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염구서 목사(남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 개회기도, 심진구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 성경봉독에 이어 글로리아찬양단(지휘 이준실)이 특별찬양했다.

이어 피종진 목사(세계복음화 협의회 대표총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29-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운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열린 2부 기념식은 백지영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소프라노 지경 씨가 미국가사를, 베이스 장진영 씨가 애국가를 불렀으며 김재권 장로(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장)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테너 전승철 씨가 삼일절 노래를 불렀다. 3부 음악회는 Korean American Young Artists(지휘 서지혜), 소프라노 지경, 에스터 추 & 오렌지카운티 첼로앙상블, 베이스 장진영, 미주여성교향(지휘 오성애), 테너 전승철, 클라리넷 연주자 백철, 소프라노 황혜경, 필리핀남성 합창단(지휘 진정우 박사)가 출연하여 공연했으며 출연자 전원 연합합창(지휘 송규식 목사)으로 '할렐루야'를 부름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이성자 기자)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 설립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 설립예배

4월 1차 노회 예정...CRC와 MOU체결 계획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 캘리포니아노회 설립예배가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조이폴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노회설립으로 백석교단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석총회 강도사 고시에 대한 절차는 고시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한국에서 4일간 강도사 고시를 치러왔다. 그 후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한 자들은 3월말 한국에서 안수를 받아야 했으며, 총회 고시위원회의 교육국에서 결과를 보고하면 인허증을 발급받게 되고 1년 후 목사안수를 받게 됐다.

이번 캘리포니아노회 설립으로 인해 강도사 고시와 목사안수 등 모든 절차를 한국이 아닌 캘리포니아노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회설립예배 역시 본 노회 주관으로 개최가 가능해졌다. 총회서기 김진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설립예배는 회록서기 김자종 목사가 기도했으며 부총회장 이종승 목사가 '주님이 반석 되시는 노회'(마16:16-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중 백석교단을 사랑하신다. 한국교회의 연합활동은 백석교단이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백석교단이 이번에 캘리포니아노회를 설립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캘리포니아노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반석 되시는 노회가 돼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차 노회를 예정한 예장백석총회는 총회원들의 듀얼템버십을 인정하고 CRC교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며 이미 CRC에 적응을 두고 있는 백석출신 한인목회자들이 본 노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호 기자)



샌 매리노 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 ITS 이승현 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학교의 역할과 비전 제시

ITS 이승현 7대 총장 취임식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이승현 7대 총장 취임식이 지난 22일 오후 3시 샌 매리노 커뮤니티교회에서 열렸다.

취임식은 포감사선교교회 반주자와 트리오의 프렐류드와 사회자의 예배 선언에 맞춰 학교 깃발을 선두로 교수진과 성가대의 입장이 있었고, 학생 대표 팀팅(Ting Ting)의 기도와 성경봉독에 이어 멜룩스 본교 직전 총장이 설교를 했다.

이어 Dr. Tong가 학교 소식 및 소개, 그리고 이사장 박문규 박사가 축사를 했다. 이어 총장취임을 위한 안수식이 있었다. 신임 학장인 이승현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포부를 제시했다. 취임사에 이어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서 유학 온 재학생들의 찬양과 생명찬교회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이어서 칼빈신학교 학장인 줄리어스 메덴블링크(Julius Medenblynk) 교수가 ITS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들을 호명하며 권면했다.

이날 취임식은 샌매리노커뮤니티교회 Jeffrey V. O'Grady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지역 대학생들의 모임인 카야(KAYA) 주최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청년들이 삼일절을 기념하는 플래시몹 공연을 하고 있다.

한인청년들 만세소리 LA에 울려 퍼지다

KAYA 주최 삼일절 행사...사물놀이 플래시몹 등

남가주지역 청년들이 LA 한인타운 3월 1일 그날의 외침을 재현해 온 한복판에서 만세를 부르며 96년

전 3월 1일 그날의 외침을 재현했다.

미주한인전국재단 명칭 및 로고 변경결정

임시총회 개최...미주한인재단과 혼란 회피

미주한인전국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이 재단 명칭 및 로고를 변경한다.

동 재단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JJ그랜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그동안 사용해온 재단 명칭과 로고를 변경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재단명칭 및 로고변경은 그동안 끊임 없이 제기됐던 미주한인재단(전국총회장 김성웅)의 직전 전국총회장 이자 현 명예총회장이 박상원 회장의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되었다.

두 단체는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정신을 계승한 단체로 재단명칭과 로고디자인이 비슷해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더구나 두 단체는 원래 한 단체였으며 분열이후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돼왔다. 따라서 재단은 갈등과 혼란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재단명칭과 로고디자인 변경을 결정하게 됐다.

동 재단은 추후 2-3달 동안 재단명칭과 정관 개정 및 새로운 디자인



미주한인전국재단 제1차 임시총회에서 이우호 총회장이 회의진행하고 있다.

작업을 하게 된다. 단 그동안 이어왔던 재단의 정신은 그대로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미주한인전국재단

의 새로운 재단 창립총회는 추후 공지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열린유아원 개장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운영하는 열린유아원이 3월 12일(목) 오전 10시 개장한다. 등록일은 10일(화) 오전 10시까지 선착순. 대상은 2.5세이며 학비는 무료.
 ▲문의: (718)886-4040

담임목사 청빙
 미중서부에 위치한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PCUSA)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교(M.Div학위 이상)를 졸업하고 풀타임 3년 이상 목회경험, 미국내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이중언어 가능한 자로, 이력서와 본인 및 가족소개서(사진포함), 신앙고백과 목회계획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추천서 3부(목회자 2명/평신도 1명), 최근 6개월내 설교 3회분(영어1회 포함-CD/DVD) 등을 보내야 한다. 서류마감은 4월 30일이다. 이메일: office@kupc.org
 ▲문의: 773-283-3377

에리자베스한인교회 40주년 감사말씀부흥회
 에리자베스한인교회(담임 소재신 목사)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김준식 목사(전 담임, 현 남가주 살롬교회 담임)를 강사로 '40주년 감사말씀 부흥회'를 갖는다. 일시는 3월 12일(목)에서 15일(주)까지, 40주년 기념주일인 15일에는 전 교인이 '드림40'(Dream40) 프로젝트(한해 동안 40명 전도, 40명 단기선교 파송, 40지역 선교지 후원)를 시작한다. 이날 명예권사도 세운다.
 ▲문의: (908)354-8488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제 2차 임실행위위원회가 3월 12일(목) 오전 10시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뉴욕지구 연합기도대회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뉴욕지구 연합기도대회가 3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매일 밤 8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미기총 대표회장),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이 연합기도대회는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가 주최하고,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JAMA가 주관하며, 뉴욕전도협의회와 뉴욕한인장로협의회가 후원한다.
 이 연합기도대회는 지난해 10월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남가주의 은혜한인교회, 2월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3월에는 뉴욕의 프라미스교회, 4월에는 워싱턴DC 열린문장로교회, 5월에는 시카고 레이크뷰장로교회, 6월에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각각 연합 기도성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문의: (646)270-9037(교협) (917)558-7435(목사회).

제15기 뉴욕 두란노어머니학교 개강
 제15기 뉴욕 두란노어머니학교가 개강한다. 일시는 4월 25일(토), 26일과 5월 2일(토), 3일(일) 토요일은 6시부터, 주일은 5시부터 열린다. 장소는 뉴욕감리교회이며 회비는 120달러(교재비 포함).
 ▲문의: (201)693-0693, (917)880-0377



KAFHI 정기 이사회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미래를 향한 전략적 가치로 사용”

뉴욕교협 리틀넥 이전 봉헌 감사예배

지난해 말 리틀넥으로 건물을 이전한 뉴욕교협이 2일 이전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다.

회장 이재덕牧사는 “모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고 시작한 인사말을 통해 긴박한 일정 가운데 건물이전이 진행돼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수고한 협조자들로 인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욕교협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건물에 필요한 물품의 리스트와 후원약정서를 배포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봉헌예배는 준비위원장 양승호 목사의 인도로 김경길 전도사의 찬양인도, 기도 문석호 목사(선교분과), 성경봉독 박영진 장로(부회장), 특송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설교 김남수 목사(해외선교위원회), 교협연혁 이상호 집사(이사장), 회장 인사말 이재덕 목사, 현금기도 김중훈 전 세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송병기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황의중 세계기독교총연합회 전 상임회장, 축사 허겸 교협경회부장단 회장, 이만호 뉴욕목사회 회장, 민승기 뉴욕한인회장, 김민선 뉴욕한인



뉴욕교협 이전 봉헌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임원들이 기념 촬영했다.

회 전 이사장, 퀸즈교협 L'Heureus, Jr 목사, 피터구 뉴욕시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감사패 증정(김영신 권사), 위촉패 증정(권대진, 제니안, 최영수, 이정원), 광고 김희복 목사(총무), 축도 방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김남수 목사는 “세워지는 기둥”(왕상7:21-22)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 성전 공사 마지막에 현관 앞에 두 개의 기둥인 아기와 보아스를 세운 것처럼 뉴욕교협이 새로운 회관을 구입하고 새출발하

는 이때에 뉴욕위원의 500여 한인교회를 돕는 상징적 단계로 교협이 해야 할 일,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모세가 40년 궁전생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편견 버리고 섬김의 삶 실천하라”

KAFHI 정기 이사회 및 선교적 교회 세미나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 회장 김형근 목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리치몬드 주 예수교회 (담임 배현찬 목사)에서 2015년도 정기 이사회 및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남미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미주 지역의 후원교회 및 기업체 대표, 리치몬드 교회협의회 관계자 및 교인들이 참여해 전세계 각처에서 전경과 지진, 홍수와 기근으로 인해 영적, 육체적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첫날 정기 이사회에 이어 진행된 둘째 날 선교적 교회 세미나에서 첫 강사로 나선, 배현찬 이사장은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로서 타인종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다문화 사회 주류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선교적 교회는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부 부이사장(한길교회)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 사교의 영향으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부인하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행태들로 인해 교회들이 무기력해지고 있다”면서,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정체성 회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전교인 새벽기도운동과 예배부흥운동을 통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의 안지후 목사는 기아대책을 통해 지구촌 아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볼리비아, 아이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세미나를 위해 참석한 선교사들은 “종교, 경제, 정치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체험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물질만이 아닌 기도의 후원을 통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세계 공동체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71년 창립한 국제기아대책(미주한인본부 2002년 설립)은 현재(2014년 12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2000여명의 아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자세한 후원 문의는 (703)473-4696 정승호 사무국장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주 예수교회)

신규 2명 추가 총 102명 후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 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26일 2월 월례 모임을 가졌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뉴욕에 있는 많은 단체와는 다른 선교모임”이라며, “30달러로 오병이외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부담을 갖고 오셔야 한다”고 아동후원에 대해 강조했다.

동 기구는 2월에 신규 아동후원 2명을 추가해 총 102명(해외 96명, 북한 6명)의 아동후원을 하고 있다.

정기예배는 오태환 목사(국내선교국장)의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삼일교문), 설교 전희수 목사, 합심기도, 광고 김영환 목사(사무총장), 축도 박진하 목사(교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약속을 지키는 자의 축복”(수10:1-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 사역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의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속아서 언약한 기브온의 요정에도 속아 넘어 약속한 것을 지켰다. 둘째, 도와주더라도 확실하게 도와줘

야 한다”며, “우리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지만 모든 것을 협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적극적인 후원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회계보고에서 권재덕 목사(사무총장)는 각 후원자(교회) 별 후원금 상황과 회비 납부 등을 지면으로 보고했다.

이날 신임회원으로 여성목사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방지각 목사 부부와 김용걸 신부가 옵서버로 참석했다.

한편 동 기구는 오는 8월 중순 아동후원 선교지 페루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29일(주) 저녁 후원자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예정돼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3월 모임은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유원정 기자)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6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eahoc.com</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권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637-1470 45-55 162 St., #2F1, Flushing, NY 11358 www.nyngtch.com</p>	<p>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6-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ngtch.com</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영예배: 오후 1:3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5:4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occhurch.org</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주일학교: 오후 9:30 (매주 1부, 3부) Tel: (201)342-9194, Fax: (201)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 영양회: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p>롱아일랜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us Tel: (516)333-7757, 목사선: (516)74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p>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학교: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p>	<p>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1:00 주일 6부예배: 오후 1:00 주일 7부예배: 오후 1:00 주일 8부예배: 오후 1:00 주일 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부예배: 오후 1:00 주일 23부예배: 오후 1:00 주일 24부예배: 오후 1:00 주일 25부예배: 오후 1:00 주일 26부예배: 오후 1:00 주일 27부예배: 오후 1:00 주일 28부예배: 오후 1:00 주일 29부예배: 오후 1:00 주일 30부예배: 오후 1:00 주일 31부예배: 오후 1:00 주일 3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3부예배: 오후 1:00 주일 34부예배: 오후 1:00 주일 35부예배: 오후 1:00 주일 36부예배: 오후 1:00 주일 37부예배: 오후 1:00 주일 38부예배: 오후 1:00 주일 39부예배: 오후 1:00 주일 40부예배: 오후 1:00 주일 41부예배: 오후 1:00 주일 42부예배: 오후 1:00 주일 4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4부예배: 오후 1:00 주일 45부예배: 오후 1:00 주일 46부예배: 오후 1:00 주일 47부예배: 오후 1:00 주일 48부예배: 오후 1:00 주일 49부예배: 오후 1:00 주일 50부예배: 오후 1:00 주일 51부예배: 오후 1:00 주일 52부예배: 오후 1:00 주일 53부예배: 오후 1:00 주일 54부예배: 오후 1:00 주일 55부예배: 오후 1:00 주일 56부예배: 오후 1:00 주일 57부예배: 오후 1:00 주일 58부예배: 오후 1:00 주일 59부예배: 오후 1:00 주일 60부예배: 오후 1:00 주일 61부예배: 오후 1:00 주일 62부예배: 오후 1:00 주일 63부예배: 오후 1:00 주일 64부예배: 오후 1:00 주일 65부예배: 오후 1:00 주일 66부예배: 오후 1:00 주일 67부예배: 오후 1:00 주일 68부예배: 오후 1:00 주일 69부예배: 오후 1:00 주일 70부예배: 오후 1:00 주일 71부예배: 오후 1:00 주일 72부예배: 오후 1:00 주일 73부예배: 오후 1:00 주일 74부예배: 오후 1:00 주일 75부예배: 오후 1:00 주일 76부예배: 오후 1:00 주일 77부예배: 오후 1:00 주일 78부예배: 오후 1:00 주일 79부예배: 오후 1:00 주일 80부예배: 오후 1:00 주일 81부예배: 오후 1:00 주일 82부예배: 오후 1:00 주일 83부예배: 오후 1:00 주일 84부예배: 오후 1:00 주일 85부예배: 오후 1:00 주일 86부예배: 오후 1:00 주일 87부예배: 오후 1:00 주일 88부예배: 오후 1:00 주일 89부예배: 오후 1:00 주일 90부예배: 오후 1:00 주일 91부예배: 오후 1:00 주일 92부예배: 오후 1:00 주일 93부예배: 오후 1:00 주일 94부예배: 오후 1:00 주일 95부예배: 오후 1:00 주일 96부예배: 오후 1:00 주일 97부예배: 오후 1:00 주일 98부예배: 오후 1:00 주일 9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0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1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2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3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4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5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6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7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89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0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1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2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3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4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5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6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7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8부예배: 오후 1:00 주일 199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0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1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2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3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4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5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6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7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8부예배: 오후 1:00 주일 209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0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1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2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3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4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5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6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7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8부예배: 오후 1:00 주일 219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0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1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2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3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4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5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6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7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8부예배: 오후 1:00 주일 229부예배: 오후 1:00 주일 230부예배: 오후 1:00 주일 231부예배: 오후 1:00 주일 232부예배: 오후 1:00 주일 233부예배: 오후 1:00 주일 234부예배: 오후 1:00 주일 235부예배: 오후 1:00 주일 236부</p>				

“영성과 실력 갖춘 교회음악인 되라”

남가주교회연합 축복의 찬양세미나 성황

남가주 교회연합 축복의 찬양세미나가 웨딩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와 빛나라 출판사(사장 송중목 대표) 공동주최로 1일 오후 4시 남가주살롱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미나는 지휘자반과 찬양대원반으로 나뉘어 대상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뤘다. 지휘자반에서는 민인기 교수(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단국대학교 음대)가 강사로 나서 ‘찬양대를 위한 음악적 테크닉’과 ‘효과적인 찬양연습’을 강의했으며 찬양대원반에서는 홍정표 교수(서울장신대)가 ‘은혜로운 찬양대가 되려면’ 및 ‘실력 있는 찬양대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또 윤임상 교수(웨딩미션대학교)는 ‘영성과 실력이 함께하는 교회음악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그가 지휘자로 있는 라크마합창단이 시범 연주를 했다.



남가주교회연합 축복의 찬양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민인기 교수, 홍정표 교수, 윤임상 교수가 강의하는 모습.

민인기 교수는 ‘실력있는 찬양대가 되려면?’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 정의하고 “찬양대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찬양대는 교회음악의 최고 형태이며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의 절정이며 찬양대는 하나님과 회중을 일

치하게 결속시키는 교량역할을 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교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영성과 실력이 함께하는 교회음



개안수술을 위한 자선음악회에서 댄스 ‘돌려놔’를 열연중인 화랑클럽 학생들

사랑의 빛 나눔 자선음악회 성황

개안수술 위해 비전케어에 후원금 전달

화랑 청소년재단(회장 박윤숙)과 화랑 라이온스클럽(회장 세라박)이 주최한 ‘사랑의 빛 나눔 음악회’가 28일 오후 5시 만나교회에서 개최됐다.

올해 4회째인 본 음악회는 비전케어(미주지사장 사이먼박) 사역을 통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검사 및 개안 수술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로, 모아진 후원금을 행사당일 비전케어에 전달했다.

이날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1부 무대는 화랑 레오클럽 남가주 지부 소속 30여명의 학생들의 Nanta-‘꿈에 울림과 애국가’(지도 이세령 선생)를 오프닝으로 막을 올린 뒤 김진하와 브라이언김의 이중창, ‘마법의 성’,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오케스트라 연주(총지휘 권상욱 전도사, 피아노 김고은 선생)가 올려 퍼졌다.

또한 ‘Tuesday’, ‘돌려놔’ 등의 댄스(지도 지양숙, 브라이언백 선생)는 참석자들의 어깨를 절로 들쭉이게 했다.

이어 2부 순서를 장식한 도산

악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윤임상 교수는 “교회에서 찬양대의 역할이 쇠퇴하게 된 이유 중 상당부분이 지휘자의 자질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휘자 부류는 실력이 있지만 영성이 부족한 자, 영성이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자, 실력과 영성 모두 부족한 자, 그리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자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휘자와 성가대원 등 교회음악인은 영성과 음악 실력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교수는 “교회음악 특히 찬양이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통적 요소를 너무 도의시하다 보니 교회 예전에서 주요한 위치를 맡은 찬양대 문화가 시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축복 찬양세미나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예배와 찬양에 관한 열정을 보였으며 격조 높은 라크마 합창단의 찬양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설립 49주년을 맞는 달라스연합교회가 이민목회의 비전과 소명으로 교회를 인도할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정규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이민목회 경력(부목사 포함) 총 5년 이상 가진 자로 KPCA교단가입에 결격사유가 없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분은 자필이력서, 목사 안수증명서, 최종학위 증명서와 자기소개서 및 교회론, 목회관(1000단어 이내), 최근 설교 동영상 3회분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yonhap.org에서 보면 된다.

▲문의: chong.c@sbcglobal.net, davidkim.kcd@gmail.com

LA남성선교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LA남성선교합창단(LAMMC 단장 유창호, 지휘 원영진) 제4회 정기연주회가 15일(주) 오후 7시 웰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과 헌금은 한국의 낙도 섬 교회들의 찬송가 반주기 구입에 쓰여지게 된다. LAMMC는 지난 2008년에 창단돼 찬양 경매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온 단원이 노력하고 있다.

▲문의: (626)825-9110/(213)446-0904

미주장신대 2015년 봄 사경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2015년 봄 사경회를 17일(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포스트모던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문문찬 목사(영국감리교회 정회원 목사)

▲문의: (562)926-1023

2015년 이단대책세미나

오렌지카운티 목사회는 남가주교회와 목사회 기독교 단체들의 후원으로 이단대책 세미나를 9일과 10일 양일간 뉴라이프선교교회(담임 유성국 목사)에서 개최한다. 등록은 9일(월) 12시이며 참가비는 간식과 식사포함 30달러.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리더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강사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지원 목사.

▲ 문의: (714)944-2930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찬양,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로 선사

더텐트(대표 다니엘박 목사)의 파킹랏 콘서트가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스텝한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2월 28일 오후 7시15분 콘서트 장소인 거주영어학교 주차장에서 열렸다.

헤븐스밴드 리더 최천국 전도사

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비올라 연주자 권이현 자매(체프만 대학교 음대 재학생)와 생수의강교회 지휘자이자 건반연주자인 전창한 형제, 보컬리스트 엘리스 신 자매, 이민우 전도사와 조나단 심 형제, 버클리음대 출신 재즈피아니스트 김민영 자매가 출연해 격조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삼삼오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출연자들이 준비한 공연에 집중하며 한국만큼 마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등 수준 높은 관람 매너를 보여주기도 했다.

주말지역 유흥의 물결 속에 처해있는 한인타운 한복판에 크리스천들이 엮어가는 건전한 공연문화를 심고 있는 더텐트는 두 달에 한번 열리게 된다. 다음 공연은 오는 4월 11일(토)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한인타운내 크리스천들이 엮어가는 공연문화를 심고있는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가 ‘스텝한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저스키즈 주회 주일학교교사교육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지저스키즈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CSUN 김은애 교육학 교수 강사로 나서

지저스키즈(Jesus Kidz, 대표 임은희 전도사)가 주최한 주일학교 교사세미나가 2월 28일 오후 1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강사 김은애 박사(CSUN 교육학 교수)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 2세대의 문제는 규범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할 때는 바로잡아줘야 하며 때로는 혼을 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교사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해줘야 하며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교사는 포기하지 않는 자이며, 아이들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줘서도 그리고 가능성보다 낮은 기대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 교사는 아이들의 가능성보다 조금 높

게 기대치를 가지고 지도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성취하고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교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교사 스스로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그것이 기독교교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교회교육담당 사역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찬양인도, 성경공부와 설교교재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부활절, 어머니 주일 등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사항에 대해 다루었다.

지저스키즈는 지난 21일에는 홀리시티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 지역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박준호 기자)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어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어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어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어키, 그리스, 로마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가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교회·목회자 SNS 목회 어떻게...다음세대 사로잡을 전략 필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팟캐스트 등 '소셜 미디어'가 교회 사회에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목회자와 교회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다양한 정보를 유통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교회별로 자체 웹사이트뿐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다음세대가 감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등을 사용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SNS 활용이 여전히 홍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치밀하고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NS는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 =조성민 베이직교회 목사는 매일 새벽 자신이 목상한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지난 24일 조 목사는 요한복음 13장 21-30절을 목상하고 '합리화의 길과 회개의 길'이란 글을 올렸다. '패친'(페이스북 친구)만 4700명이 넘는 조 목사는 트위터 잘 하는 목사로 더 유명하다. 팔로워만 18만3000명이 넘으며 4년 전에는 자신의 트위터 내용을 묶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도 SNS를 이용해 자신의 감상이나 일상을 나누고 있다. 그는 '최일도 목사의 마음 나누기'란 제목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칼럼을 전송한다. 최근 다일공동체 시설장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

인과 사회문을 올리고 "제 잘못이 보다 크다. 내 탓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최 목사는 페이스북보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선호한다.

풍부한 콘텐츠로 여러 사람 공유...20-30대와 소통 나서야

다. 이는 페이스북이 최대 5000명까지 친구를 둘 수 있는 반면,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 목사의 구독자는 현재 3만2800여명에 달한다. 패친 4900명을 보유하고 있는 김병삼 분당만나교회 목사도 인기 있는 '패북지기'다. 설교 동영상도 SNS를 이용해 자신의 감상이나 일상을 나누고 있다. 그는 '최일도 목사의 마음 나누기'란 제목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칼럼을 전송한다. 최근 다일공동체 시설장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

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유익한 내용은 실시간 공유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페이스북은 교회 내 활동만 소개하지 않는다. 한 TV 오디션 프로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비롯해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다양한 글과 영상 등 정보가 넘친다. 만화나 사진 이미지도 많이 패친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타임라인에 이야기 하나가 오를 때마다 '좋아요'와 댓글로 와글와글 하다.

◇전략적 접근 시급=이런 가

나 편향적이지 않아야 하며,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필요하면 SNS 플랫폼 변화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네티즌들은 트위터가 페이스북을 떠나 사진 이미지로 느낌을 표현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등으로 옮기는 추세다. SNS 목회도 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석대 전석재 교수는 "일단 목회자 자신부터 SNS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목회자가 하기 어려우면 다양한 전문 단체나 기관과 공조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SNS를

전담하는 목회사역자도 청빙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절반인 55.1%가 SNS를 사용하고 있다(2013년). 20대가 87.5%로 가장 많고 30대가 74.0%, 40대가 48.7%로 나타나 20-30대에 대거 쏠려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를 염두에 두고라도 온라인 사역은 필수다.

바로 남과 북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은 광복의 미래를 향해 예수가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함목소리로 힘차게 증언하자"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고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반도를 평화와 상생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남측 정부는 5·24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남북 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은 대북경제정책을 상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종교간 갈등으로 확산돼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병희 한교연 대표회장도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세계적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부근 지하철 역명을 상식적으로 코엑스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공공시설명인 코엑스를 두고 120m 떨어진 곳에 특정 종교 시설을 역명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 문제

임초 만난 軍선교...진중세례 지속 감소

1998년 이후 최저 수준...'대대급 군인교회 부흥' 대안

지난해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은 14만1395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8237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연도별 진중세례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규모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박선희 목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여전도회관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연도별 진중세례(침례) 현황'을 공개했다.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은 2010년 18만4320명 이후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98년 20만7951명과 99년 21만6080명 등과 비교하면 6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군 선교 전문가들은 진중세례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를 정신력 강화를 위해 모든 장병이 종교를 갖도록 하던 정책이 약화된 데서 찾고 있다. 현재는 무종교도 개인의 권리인 만큼 종교를 갖도록 권장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강연도 화천군 2337부대 살롱교회 업무한 목사는 "전국 군인교회가 비상"이라며 "우리 교회 교인 수도 지난해 초 250명에서 현재 120명 수준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1960년대 북한 무장공비 침투가 빈번할 때 우리 군은 정신력 강화를 위해 '1인 1종교 갖기'를 적극 권장했다"면서 "지난해 윤도 일병 사건 등 군내 사고가 빈발하자 내부반에서 더 많은 휴식을

취하도록 했고 장병들의 종교 활동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 목사는 "이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종교가 강감해왔던 군 사기나 정신력 강화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 선교에 적극적이지 않던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단들은 최근 군 선교(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병을 요구한 군 교역자는 "90년대까지 군 선교가 기독교 독점시대였다면 지금은 종단 간 무한경쟁 시대"라며 "천주교의 경우 기독교의 '진중세례'를 벤치마킹해 '진중영세'를 실시하는 등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단들의 군 선교가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군선교후원회 총무는 "진중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60만 국군장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선희 이사장은 이날 설교에서 "훈련소를 수료한 장병들이 가는 1004개 군인교회, 특히 대대급 군인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면서 "지역 대대교회와 지역 일반교회와의 1대 1 결연이 활발해져 대대급 군인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들의 양육이 온전히 이뤄진다면 한국교회의 생명력이 다시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연, 간통제 위헌 헌재 결정 비판

"우리아시 도덕적 가치기준 무너뜨리는 조치"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선고에 대해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강요가 더 이상 법외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27일 '간통죄 위헌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이 지난 62년간 간통죄에 온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이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헌재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도덕적 가치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간통은 윤리적·성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 행위가 정당화돼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위들에게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한교연은 간통죄가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준다는 데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고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마저 없어질 때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과 자라나는 세대에 미치게 될 성적 타락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또 다른 인권 말살 행위와 그에 편승한 저급한 시대적 조류에 온 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사회의 근간인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위안부 범죄 참회하라"

한기총·한교연, 3·1절 메시지 발표

한국교회연합기관들은 3·1절을 앞두고 여전히 역사왜곡을 일삼고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6일 3·1절 성명서에서 "일본이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인권유린 행동인 일본군위안부 동원 범죄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역사를 왜곡시키는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생존 할머니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음을 주지시킨 뒤 "당시와 같이 민족을 선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회개·기도·성령 운동을 통해 영적지도를 회복하며 나눔과 섬김 사역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기총은 이날 3·1절 메시지를 양병희 목사도 이날 3·1절 메시지를 통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

국주의 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 앞에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강제 징병 희생자·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 교과서 역사 날조 시정 등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3·1운동에 새겨진 정의 평화 자유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NCCK는 조그련과 함께 '3·1운동 96돌 남북교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남북이 연대해 민족의 광복을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NCCK와 조그련은 "분단을 극복한 광복의 날은 외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한교연, 분열 후 첫 공동기자회견

"봉은사역명 즉각 철회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국민일보 빌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관련 공식 입

장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연합을 대표하는 양 기구 수장은 기자회견에서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미숙한 행정처리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야기시켰다"면서 대안으로 역명을 '코엑스'로 하고 역내

에만 '코엑스(봉은사)'라는 명칭을 부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1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세계적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부근 지하철 역명을 상식적으로 코엑스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공공시설명인 코엑스를 두고 120m 떨어진 곳에 특정 종교 시설을 역명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 문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벤엘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철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회: 오전 10시, (월) 오전 11시 유년부: 오전 10: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후 6:30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앵커리지리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엘파소리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반성예배: 오후 8:00	임성론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EM)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월, 토, 주일)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경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템프스코교회  담임목사: 윤성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크리스천 리더십



선교 펴기

브라질

요란했던 카니발도 끝나고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22년간 현지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교회들을 통해서 천국시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1. 데이빗 형제 신학교 졸업: 4년간의 베렐 신학교를 졸업하고 캄뵘.림뵘교회에서 설교와 성경공부 인도 등 좋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 교회 안포니오장로의 사위입니다 장인 안포니오는 20년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전 적이 없습니다.



2. 목포상리교회, 목포노회 목회자 부부 양부교회, 캄뵘 림뵘교회 방문: 1월21일부터 2월3일

까지 브라질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지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3. 현지교회도 브라질 밀알장애인단체 돕기로 하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밀알단체(이재서 박사)에 양부 현지인교회들도 후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시골 교회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여 한국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브라질 밀알을 돕기로 했습니다.



4. 브라질 GMS 독노회 설립: 3월 14일 브라질 현지교회들을 통해 브라질 장로교 독노회를 설립합니다. 양부교회는 힐데브란도 전도사를 브라질 지부신학교에서 목사후보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5. 이보네찌 결혼식: 양부교회에서 크렘슨과 이보네찌가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이보네찌는 흑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바이아주에서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업의 기회도 없었으나 상파울로로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크렘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집을 건축하고 있고 미국에서 일하려고 영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시영 선교사 드림
이메일: nohsyoung03@gmail.com

(13면에서 계속)

보수도 좋고, 안전하고, 확실한 직업을 그만두고 가난해도 없는 나라에 가서 이전에 결코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왕 앞에 안색을 어둡게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용기가 있었다.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는 믿음의 다른 말이다.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 가까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느낌이 아니라 한 일이다. 만일 당신이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당신은 보트에서 내려야 한다. 당신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당신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야 한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용기는 위대한 리더의 특징이다.

7. 정직한 마음

느헤미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봉급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벽 공사를 감독하며 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이용해서 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8. 확신

위대한 리더는 신념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 의견은 당신이 논의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신념은 당신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것이다. 느헤미야는 신념의 사람이었다.

적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중단없이 해나갔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결단력 있게 일했다. 왜? 그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인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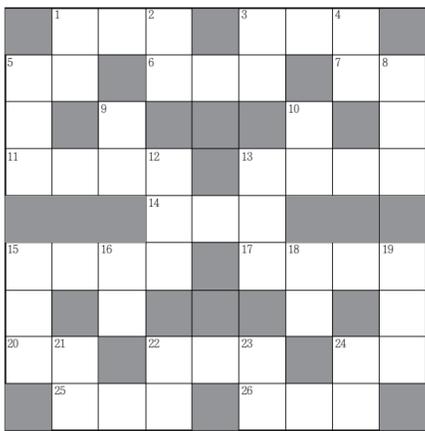
결론

각 리더들마다 위의 8가지 성품을 가운데 개발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성품을 개발해야 하는가? 우리는 있는 곳에서 리더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리더십의 기초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품이며, 교육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인품이다. 주님께 올해에 우리의 삶에 리더십의 자질을 발전시켜주시길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스러운 리더가 되도록 하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크신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끝)

십자말 • Cross Word (7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말린 포도(민6:3).
- 금으로 독종 형상을 만든 것(삼상6:4).
- 싸움터(삿8:13).
- 세례를 베푸는 일이나 성찬식을 하는 일.
- 하룻밤을 오경으로 나는 뱃재 시각으로, 새벽 2시부터 4시 무렵(마14:25).
-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네 번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OOOO(마27:46).
- 다함이 없이 오래고 오랜. 영원하며 끝이 없음(출15:18).
- 유다지파 미스바 지방을 다스린 사람(느3:15).
-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에서 나면서 앓은병이 된 자를 고침(행14:8).
- 임금이 거쳐하는 궁전을 지키며 돌보는 사람(행19:35).
- 공관복음의 제2복음 저자.
- 미리 준비하는 날(마27:62).
- 유대인의 고향(시87:5).
- 장사 지내는 법도(요19:40).
- 심판하는 자리(롬14:10).

<세로 푸는 열쇠>

- 씩씩하고 굳센(창49:14).
- 서울, 또는 도읍 둘레에 돌린 성곽을 말한다(창36:32).
- 식음을 전폐함(왕상21:12).
- 어느 일에 마음과 힘을 다 함(민4:37).
- 기독교의 한 교파. 전도의 임무를 맡은 사람.
- 조선 이씨 왕조가 살던 궁전의 이름.
- 예수의 조상. 요셉의 아버지(눅3:26).
- 평탄한 들판(신3:10).
- 예루살렘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안디옥 사람(행6:5).
- 영원 전(롬16:25).
- 호세아의 딸에게 불려진 새 이름(호2:1).
- 노아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했다(창25:3).
- 깨달아 마음을 작정함(행21:13).
-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가 되어 40년간 태평하게 하였다(삿7:2).
- 임시로 거저으로 꾸밈(고후11:13).
- 예이나 몸가짐의 법칙(히9:1).
- 한 마음(수9:2).
- 시간을 역사적으로 나는 한 기간(출1:6).

십자말 정답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1일 ~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일 ~ 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9일 ~ 11일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3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4월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1월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일 ~ 2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월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종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신교회(한기형목사)	1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27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LA 평화교회(김은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희준목사)	1월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이종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재목사)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스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련회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월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회(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3)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에서 성경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특히 신명기 6장 4-9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위 '쉐마'라고 불리는 이 구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기초는 첫째, 교육의 중심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며, 둘째,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로 알고 헌신적으로 혹은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또 그

로 해석하면, 일단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언제든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여" 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 애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교육할 것이며, 그 교육의 내용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를 하나씩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보다 풍성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라는 구절은 "언제 어디서나" 교육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 그들의 전 삶에 걸쳐서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의 전 삶의 영역 혹은 분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거나, 홀로 사색하거나, 혹은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그들의 전 삶을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일관되게 가르치고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집에 있을 때만 가르치고 집에서만 그리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활동을 할 때도, 홀로 있을 때에도, 또한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이를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를 더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교육 내용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가정 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에 더하여, 부모들의 가정 생활의 모든 면면들을 통해 자녀들의 전 삶에 그 교육의 내용이 스며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이곳을 보아도 저 곳을 보아도, 부모님들의 이러한 생활을 보아도 저러한 생활을 접해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열과 성을 다

들의 전체 삶과 전인적인 삶을 통해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쉼마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깊은 의미의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기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면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들과 영적인 부모들이 받은 자녀교육의 사명이 참으로 버겁고 무거운 듯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대부분 단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 있을 때 혹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지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교육에 임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바 우리의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전 삶의 영역을 터치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존재의 양상 즉 지성의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적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회자되어 왔으며 다양한 하루 자료들이 생성되어 온 것이겠지요. 그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논하는 것은 차차 해나갈 것이라, 모쪼록 일단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비록 버겁고 무거운 듯 하지만, 이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명이며, 이를 위해 부름 받은 우리의 소명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성경적 기초를 우리 안에 단단히 매어두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가정생활의 모든 면면 등 자녀들의 전 삶에 걸쳐 행해져야 지성의 모든 존재 양상을 합해 하나님 사랑할 것 가르쳐야

래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육자는 가정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기초 그 마지막 부분인 "우리 자녀들의 전 삶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6: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육의 기초적 핵심 내용을 영적인 부모들인 목회자들과 육신의 부모들인 가정 내 친 부모님들이 합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쉼마 구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7-9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7-9절을 있는 그대로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경건한 슬픔(고후7:2-16)찬495장

경건한 슬픔은 신자 여정에 항상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10). 이 근심으로 신자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요? 첫째, 7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성 곧 진지해지며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의분을 가지며, 두려움 곧 영적 경각심을 가지며 인내로 갈망하는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의가 나타나기를 진지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 바울은 경건한 근심이

화 바울의 소망(고후3:12-18)찬432장

바울의 소망은 새 언약의 영광에 참여함에 있습니다. 모세가 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은 그가 바로 영광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첫째, 구약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영광을 목격한 모세를 볼 수 없었지만 그 영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신약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가리었던 것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

수 그리스도인의 만족(고후3:5)찬210장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니까? 언약의 탁월함을 주장하는 사도는 하나님께로 오는 만족을 누리라고 권합니다. 첫째, 그의 만족은 복음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 옛언약과 새언약을 대조하지만 비교적 우월성을 넘어 복음의 근본적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 아론의 만족이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의 비교처럼 복음이 없는 옛언약은 더 이상 생명없는 것을 주장

목 정상적 신자(갈5:16)찬175장

정상적 신자의 삶의 실마리는 성령과 육체의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성령 받은 신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을 따르면 생명의 열매를 맛보나 육체를 따르면 사망을 맛봅니다. 이것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선택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알기전 우리는 그냥 있어도 육체의 부패성을 따르는데 익숙해 항상 사망의 열매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금 자기를 지키라(갈6:11-18)찬518장

자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살펴야 하나? 첫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살펴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성(정욕과 탐욕)은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바울은 씨를 심는 비유로 육체를 심으면 사망, 성령을 심으면 영생(의 풍성함)을 반드시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롬8장 내용과 같습니다. 성령을 따르지만 어떤 어떠한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둘째,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4). 율법과 믿음의 첨예

토 율법의 역할(갈3:24)찬519장

율법을 초등학교 교사로 비유한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약과 신약,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해 그 불연속성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죄를 치러할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인 의, 인, 신을 완성하는 독특성을 가집니다. 대학교수가 아닌 초등교사로 비유한 것은 율법을 통할 때 복음으

로 영양소를 공급받아 사역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가지면 승천으로 시작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1세가 광야생활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된 불신앙이었습니다. 신자생활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와 말은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마침내 생명이 이르게 합니다. 이런 슬픔으로 충만합니다.

키신 것입니다(중생). 둘째, 성령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가 영이란 말은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셋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죄에서 죄로, 사망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습니다. 그를 깊이 알아갑시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족의 근원적 주제로 나가게 합니다. "자기나, 하나님이나"라는 문제는 에덴동산에서 벌써 일어났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생긴 분별력은 사망을 가져왔지만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신자의 분별력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케 한 것만이 신자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든지...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후 성령을 따를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도록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함이 우리가 집중할 일이라고 합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육체의 열매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약속된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이 약속을 주장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로 쉽게 나가도록 그림을 그리듯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기를 잘 살필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전적무력함을 인정하고 자기 노력의 불가능성을 알고 항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초등교사의 자상한 가르침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32-490-7000, Fax. (82)32-43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Tel. (031)877-3389, Fax. (031)877-8382 (주)110-831... 서울시 중랑구 동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7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5: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82)2-2648-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0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5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동산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로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71 291(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011)82-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진해구 양곡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1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결혼 여부보다 자녀 여부가 경제적으로 더 중요”

IBTimes, 지구촌 결혼율 감소로 인한 영적, 경제적 황폐 현상 우려 보도

선진국에선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든다. 종교계와 가정옹호론자들은 그런 추세를 우려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11월 바티칸 회의에서 요즘 만연한 '임시의 문화'를 개탄하며 혼인 전통의 쇠퇴가 '영적인 황폐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결혼율과 출산율의 감소는 경제적으로도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구입이나 은퇴를 위한 저축, 영구적인 것에 대한 투자를 미루기 때문이다(Growing Decline In Marriage Rates Leading To Spiritual - And Economic - Devastation?)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아동·가족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경제학자 이자벨 V. 소홀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과거만큼 결혼중심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 결과 주택이나 가구 등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가 없는 성인들은 주택담보 대출과

면서 20-30대의 다수에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이 과거보다 매력적이지 않다. 유럽의 경우 경기침체로 부모의 집에 머무르는 젊은이가 많아졌다. 영국 신문 가디언이 인용한 EU 자료에 따르면 18-30세의 거의 절반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젊은 세대는 경제와 애정 관계,

블룸버그 뉴스에 인용된 고객 보고 서에서 말했다. “그들은 다양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산업이 신속히,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독신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면도 있다고 야드니는 덧붙였다. 단 하나의 소득원이나 건강보험에

그리스인 사진작가인 알렉시아도 가정을 꾸리는 데는 반드시 결혼이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자녀를 갖게 되면 결혼하지 않고도 똑같이 커플의 유대감이 생긴다. 결혼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2년 스페인 아기의 약 36%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다. 1980년에는 그 비율이 4%에 불과했다고 카스트로-마르틴은 지적했다. “그들은 청소년 미혼모나 독신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다. 단지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자녀일 뿐이다. 스페인 같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사회가 크게 변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전체로 볼 때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39%(미국의 경우 41%).

카스트로-마르틴은 경제가 나아져도 젊은 성인 사이의 그런 태도 변화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의 사정이 호전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는 커플이 많아질 수 있지만 혼인율과 출산율이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예이다.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 과거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 성인 절반만 기혼자...EU결혼율 천명당 4.8명
OECD회원국 평균출산율 지난 40년간 40% 감소
미국,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출산율 41% 차지

자녀 학자금 저축대신 휴가, 외식, 아파트 임대 같은 단기적인 지출에 치중한다고 소홀은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혼인율은 거의 한 세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미국 성인중 기혼자는 50.3%였다(1960년 72.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유럽의 혼인율은 1970년보다 약 40%가 낮아졌다. 유럽연합(EU) 통계청 유로스탯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혼인율은 1000명 당 4.8명이었다(40년 전에는 7.9명). 호주, 일본, 한국, 브라질, 멕시코 등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도 혼인율이 비슷하게 감소했다.

혼인율 감소는 대부분 수십 년에 걸친 사회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근로 인력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배우자를 찾을 필요가 줄었다. 게다가 결혼식을 무시하고 별 거리낌 없이 미혼 상태로 동거하는 커플이 많아졌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한 것은 부분적으로 경기침체 때문이다. 세계 전역에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특히 미국의 경우 학자금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직장이 아주 불확실하다고 느낀다”고 소홀이 말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서 모험을 원치 않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선진국의 출산율을 억누르고 있다. 물론 자녀보다 경력과 여가활동을 원하고, 더 작은 가족을 선호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런던에 사는 그리스인 사진작가 알렉시아(28)는 언젠가는 자녀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은 얽매고 싶지 않다. 아기를 갖기 전에 여행을 하면서 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지난 40년 동안 거의 40%가 감소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가임연령 여성 1명 당 아기 1.7명이 태어났다(1970년에는 2.7명이었다).

뉴욕의 경제 전문가 에드워드 야드니는 자녀 없는 독신 성인이 늘어나면 경제의 일부 분야에서는 이로울 수도 있다. “셀피(보통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 셀카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야드니가 그런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유행성이 많다”고 야드니가

이존하는 사람은 정리해고나 질병에 더 취약하다. 또 아이들이 적다는 것도 미래 납세자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야드니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선 법적, 금융적 시스템이 기혼자에게 유리하다. 잡지 애틀랜틱의 2013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법 1000가지 이상이 기혼자에게 명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 생명, 주택 등의 보험료도 평균적으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적게 낸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사 카스트로-마르틴은 사람들이 자녀 갖기를 미루는 것이 결혼을 미루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의 인구학 전문 연구교수다. “결혼 여부보다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카스트로-마르틴은 말했다.

그녀는 스페인이나 다른 선진국에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커플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래서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주택을 구입하고 더 나은 차를 사고 저축을 하는 등 장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 모세오경



志常 김길홍 목사 (시인/소설가)

민족들(民族 The Table of Nations) (창세기 10:1-11:32)

노아 자녀 세 사람 아벳 함 셈이요
그들 후손 널리 퍼지니 열국 백성 되었고다

자기들 이름 드높이려 시날 광야에 하늘 높이 성과 대 쌓으니
어리석은 우리 보사 아훼 손 펴서 바벨로 언어 혼잡주시네

바벨의 어둠 깃든 곳 아침 햇살 사이로 이슬 한 방울
갈대아 우르 땅에 떨어지니

셈의 자손 데라에게 믿음의 자손 주심이요
그 이름 아브라함이라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머느리 사라, 손자 롯 데리고
가나안 하란 땅에 이르러 그의 나이 이백 육세로 향수하니

그곳 아브라함 부름 받은 곳이라

남이 찾았도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될 사람
아훼 부르신 이름 아브라함! 영광 영광 여호와 이레

그 이름 창대하리니 하늘 문 열리고 땅이 소리치도다!

(4면에서 계속)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구원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말 듣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그 말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의사에게 가서 당신의 병을 고치십시오” 한다면 그 말은 우스운 말일 수 있지만, 병든 자에게는 그 말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병에 걸렸으면서도 병을 지적하고, 명의사를 가르쳐 주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으라”는 말을 부끄러워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구원에 관하여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민 빌립 집사의 지시를 기뻐했었습니다(행8:31). 또한 빌립보 감옥의 옥사장도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애타게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었습니다(행16:30).

8. 사람이 고침(구원)받으면 그의 인생은 그것을 남에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12).

중풍병자는 고침 받고 일어나 자기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예수께 접붙여 지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태양은 연하게 하든지 굳게 하고, 소생시키든지 시들게 합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었던 그 침대(상)를 그 장본인이 들고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남의 신세만 지던 사람이 남을 돕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9. 그리스도는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족을 주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중풍병자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병든 자를 데려온 그 믿음을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에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에 충분한 분이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9:8).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 하리라”(요6:37).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교회 곧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 나아온 사람마다 구원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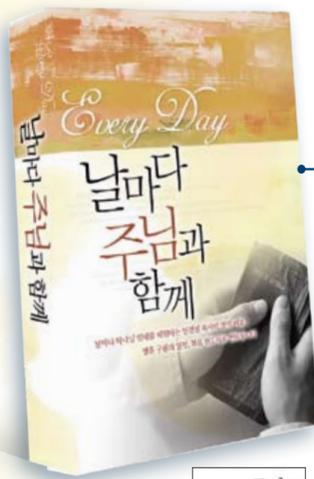
2015년 매일매일 주님 손 잡고 완주하자



완주자의 노래
감사, 감사 또 감사!
총신교회 원로목사 박중순 목사의 40년 목회 회고록
목회는, 단편승부보다는 완주 목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목회자들이 중도탈락 없이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길 바라는 마음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솔직하게 목회의 부끄러움부터 평소의 목회철학인
정도목회와 균형목회에 대해, 동역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을 담았다.
336면 / 14,000원 / 신국판 양장

■ 저자/박중순
동부이촌동의 총신교회 원로목사로서, 사단법인 한지터 이사장 겸 대표, 한중기독교교류협회 대표회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숭실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C채널 TV방송 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저자/민경실
광진교회의 담임목사로 대전신학대학교 명예총장,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미래목회연구원 원장, CTS 기독교TV와 국민일보, 극동방송 설교자,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학교 교장, 안산이주민센터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1년 52주 365일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도록 이끈다.
718면 / 25,000원 / 신국판 양장

■ 저자/민경실

www.g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 6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